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를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47호

Wednesday, June 19, 2024 A

‘24년만의 방북’ 푸틴 평양 도착...북·러 밀착 관심집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크렘린궁은 이날 오전 2시46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북한 수도 평양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매체들도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가 이날 오전 2시22분 평양 순안 공항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직접 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을 영접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특파원을 통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지역 사하(야쿠티아) 공화국 야쿠츠크방문 일정을 마친 뒤 이날 밤 전용기를 타고 북한으로 이동했다.

타스 통신 등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푸틴 대통령이 탄 일류신(IL)-96 전용기는 이날 새벽 달이 뜬 어두컴컴한 평양 순안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푸틴 대통령은 레드카펫을 밟으며 비행기 계단을 내려왔고 열중쉬어 자세로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기다리던 김



19일(현지시간) 평양 공항에서 만나 포옹하는 인사를 나누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로이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을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두 사람은 악수한 뒤 두 차례 서로 껴안았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따라 자동차 쪽으로 걸어갔으며, 이동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주로 푸틴 대통령이 손짓하며 말하고 김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우루

스’ 리무진 앞에서 서로 먼저 타라고 양보하는 듯 손짓을 하다가 푸틴 대통령을 뒷좌석 오른쪽에, 김 위원장을 뒷좌석 왼쪽에 앉았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늦게 평양에 도착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하루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은 자국 일정을

챙기느라 북한에 늦게 도착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19~20일 이후 24년 만이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지도자로서 처음 북한을 찾아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고 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북러 정상회담을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오후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를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전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 협정에 안보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산책하고 차를 마시며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대화도 긴 시간 나눌 예정이다.

지난달 집권 5기를 공식 시작한 이후 가장 먼저 중국(5.16~17)을 찾았던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5.23~24), 우즈베키스탄(5.26~28)에 이어 북한을 네 번째 해외 방문지로 택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일정을 마친 뒤 19일 오후 베트남으로 향한다. 그는 응우옌 푸 쯘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초청으로 19~2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관계기사 2면 한영혜 기자

볼티모어 항구 사고 뱃길 완전 복구

3월 사고 이후 12억달러 직접 손실

메릴랜드 볼티모어 항구로 통하는 항로가 100% 복구됐다.

지난 3월26일 컨테이너 선박과 프랜시스키 브릿지 충돌사고로 항구 진출입 항로가 폐쇄됐다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친 부분 개통 과정을 거쳐 이번 주 완전 개통의 결실을 보게 됐다.

메릴랜드 항만청은 볼티모어 항구로 통하는 너비 700피트, 깊이 50피트의 항로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볼티모어 시티 정부가 컨설팅 회사 세이지 팔리시 그룹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 3월 사고로 인해 볼티모어 지역 경제는 모두 12억달러에 달하는 직접손실을 봤다.

다라이우스 이라니 타우슨대학 교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손실이 훨씬 적었던 하지만 다리가 다시 개통될 때까지 손실은 계속 누적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누적가치 등 간접적인 손실까지 합친다면 60억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4월 한달 동안 메릴랜드는 7800개

이상의 고용을 늘렸으나 이 사고의 여파로 교통, 창고, 유틸리티 업계 고용 인력이 1천명 이상 줄었다.

웨스 무어 주지사는 “항로 복원까지 6-1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기간을 11주로 단축시켰다”면서 “우리는 매우 큰 고통을 겪었으나 이를 완전히 극복해 내는 위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메릴랜드 주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무너진 다리를 재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부 “활활 타오르다” 17일 산불이 발생한 서부 뉴멕시코주 루이도소숲을 거대한 불길에 삼키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지역에선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산불로 여의도 면적 20배가 넘는 60㎢가 소실됐다. [로이터=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홍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피
순금 여기 물받지 못함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ERNAMERICA, ATHENE,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 Life,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NATIONAL WESTERN LIFE

Aetna, NATIONAL WESTERN LIFE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김정은·푸틴, 24년 만에 북·러 관계 격상

푸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체결 지지
한·러 관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
무역·군사 협력까지 아우를 듯
'유사시 군 자동개입' 부활 촉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둔 18일 평양 김일성광장 인근의 한 건물에 사진과 함께 '러시아 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를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배너가 걸려 있다. [타스=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앞서 18일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협정 체결을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법률 웹사이트에 발표된 대통령령 문건에 따르면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동반자관계 협정을 체결하자는 러시아 외무부의 제안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까지로 예정된 방북 기간 중 이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도 지난 17일(현지시간) "이 협정이 서명되면 이는 기존에 체결된 기본 문서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 푸틴 대통령의 첫 방북 당시 맺은 '조·러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현재 한국과는 한 단계 낮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다.

이 조약 2조에는 상호 안전보장과 관련, "쌍방

중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북한은 1961년 7월 맺었다가 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공식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 조약' 수준의 유사시 군사적 자동 개입 조항의 부활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새 협약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도착에 앞서 노동신문 1면에 기고문을 실었다. 2019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북 직전 노동신문에 기고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연대를 이어가는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및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 제한 조치들을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핵·미사일 개발로 각각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받는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과 달러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체 무역·결제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미국 주도의 무역질서를 무시하는 공간을 만들고, 이를 불복화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는 또 "조선(북한)의 벚들은 수십 년간 계속되는 미국의 경제적 압력과 도발, 공갈과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고수해 나가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어제, 내일도 조선 인민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타바리시치(товарищ, 공산당 동지)"라고 부르며 북한과의 역사적 관계를 상세히 거론하기도 했다. "소련은 세계 최초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했으며, 1950~53년 6·25전쟁에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했다"면서다. 현승수 통

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을 동지라 부르며 과거의 혈맹 관계를 강조한 건 러시아가 양국 관계를 이 수준까지 끌어 올리고 싶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노동신문은 이 날짜 사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의 뿌리 깊은 친선과 협조 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양국의 선린 우호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에 방북 주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에 따르면 공식 환영식, 확대 및 비공식 정상회담, 문서 서명식 및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다. 그는 "두 정상은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평양 시내에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순안공항 건물 외벽에는 '조로 친선은 영원하리라' 등의 환영 배너가 내걸렸고, 도로 옆에는 러시아 국기와 푸틴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깃발이 빼곡하게 들어섰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베트남으로 떠난다.

정영교·이유정·박현주 기자

무기·무역·금융까지 '나쁜 공급망' 손잡는다

'반미연대' 뭉치는 북·러의 속내
러, 북 재래식 무기 공급 늘리고
북, 러 기술 얻어 '핵보유국' 굳히기
'푸틴, 식량 수출·북 노동력에 관심'

북·러 조약 변천사

- 1961년 소련-북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자동 군사개입, 경제·문화·기술의 원조·제공 등)
- 1996년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폐기
- 2000년 2월 러시아-북한 '우호·선린·협조 조약' 체결 (자동 군사개입 삭제, 경제·과학·기술·문화 등의 협력)
- 2000년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북한에서 북·러 공동선언 채택
- 2001년 8월 푸틴-김정일, 러시아에서 '북·러 모스크바 선언' 채택(한반도 자주·평화 통일, 북·러 철도 연결 등)
- 2024년 6월 19일 푸틴-김정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전망

푸틴 방북 오는 주요 일정

- 공식 환영식
- 양측 대표단 소개
- 리장대사령
- 사건 촬영
- 북·러 정상회담 및 기자회견
- 신해 및 다도들 경한 일대일 비공식 회담
- 공연 관람
- 해방탑 헌화
- 러시아 정교회 성당 '정백사원' 방문
- 베트남으로 출국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북·러 간 군사협력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탄약 등 재래식 무기 제공을 강화하는 대신 러시아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핵추진잠수함·인공위성 등 첨단 군사기술을 지원할지 여부다.

이는 동북아는 물론 세계 안보 질서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단 18일 푸틴 대통령은 이날자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의 지난 17일(현지시간) 설명대로 이 문제는 19일 예정된 두 정상의 일대일 비공식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까지 이번 회담에 임하는 두 정상의 방침은 서로 다른 곳에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 3년째를 맞는 푸틴 대통령의 당면 과제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지원 강화를 끌어내는 것이다. 18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영국·우크라이나 국방부 합동 콘퍼런스에서 북한은 122mm 방사포탄과 152mm 자주포탄 180만 발을 러시아에 지원했다

고 밝혔다. 이는 러시아가 사용한 전제 포탄 중 이란의 지원을 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북한이 거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뜻밖의 대 러시아 '레버리지'를 확보하게 된 북한은 그 대가로 첨단 군사기술 협력과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 승인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 북한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28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당시 사용했던 신행 로켓 1단 추진체를 러시아에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 김 위원장이 그간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 확보에 강한 의욕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 역시 북한의 '위시리스트'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 한국 등 국제사회가 첨단 군사기술 제공을 '레드라인'으로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는 점과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첨단 기술 이전에 부정적이

라는 점에서 이런 위험한 거래에 손을 댈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해 북·러 관계 심화를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향후

러시아로부터 받을 지원들에 대해 매우, 매우,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 승인 역시 북한의 '위시리스트'에 담겨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자 사실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중추세력들의 팽창적인 전쟁 도발 책동에 가공할 핵 억제력으로 맞서는 인민의 투쟁에 확고한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러시아는 어제, 내일도 침략적인 대결과 투쟁에서 조선 인민을 지지한다"고만 했는데, 북한은 이에 더해 러시아가 '핵 억제력'을 지지한다고 부각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으로서 '경제협력 강화' 카드로 북한을 달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키릴 코트코프 극동국가연구소장은 17일 러시아 차르드라드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경제관계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식량 수출과 대북제재로 금지된 북한 노동력 이용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교·이유정·박현주 기자

워싱턴 날씨 (°F)

20일(목)	92-71	23일(일)	100-81
21일(금)	96-75	24일(월)	98-73
22일(토)	96-77	25일(화)	94-77

6월 19일(수) 91~7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약 챙겨드리기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식사 도와드리기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말 돌무 해드리기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 상태 확인 등등

롱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 미국장로회 한인교협 회장 선임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류응렬(사진) 담임목사가 미국장로회 한인교회협의회(PCA-CKC) 회장으로 선출됐다.

PCA-CKC는 미국장로교회 내 9개의 한인노회가 모인 협의체로 600여명의 한인 목사와 장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3박4일간 버지니아 리치몬드 웨라톤호텔에서 실시한 제 51차 PCA 정기총회 및 CKC 수련회를 통해 류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신임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류 목사는 '역동의 시대 목회자의 자세'를 주제로 한 이번 총회 및 수련회에서 "미국에서 PCA교단의 한인목회자들이 행복하고 보람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잘 살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총회 마지막 날 진행된 예배에는 3천여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PCA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배를 인도하는 역사를 썼다.

김은일 목사(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가 시편 67편 말씀으로 '복주기 위해 복 받은 사람'의 설교를 전했다



으며, 류응렬 목사가 세계선교위원회(MTW)와 세계선교를 위한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류 목사는 한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과 한국전쟁 희생자들을 향해 감사를 전하며 한국교회의 새벽기도를 소개했다. 이어 한국 목회자들의 선창에 맞춰 미국 목회자들이 '주여 삼창'을 외치며 통성기도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한인수도노회장 안성식 목사(워싱턴목양교회 담임)의 축도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은미 기자

만나봤습니다

출범 1주년 재외동포청 인기철 청장

“재외동포·모국 동반성장 기틀 마련”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지난 5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이기철 청장(사진)은 본지 인터뷰를 통해 “재외동포청의 주된 역할은 재외동포의 보호 및 지원,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와 본국 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조직 정비, 직원 채용,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 설정과 관계부처 간 업무 조정 등 재외동포정책 기본틀 마련을 위한 과제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혜적 관계에서 벗어나 동반성장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외동포청이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이행을 일원화한 만큼, 재외동포정책을 더욱 체계적, 종합적,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기철 청장과 일문일답.

-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평가한다면.

“재외동포청은 708만 재외동포의 오랜 염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으로 재외동포 업무를 전담하게 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초대 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많은 과제를 처리했다.”

-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정책 핵심목표는 무엇인가.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

정책 수립·사업 이행 일원화
복수국적, 관계기관 협의 계속



에서 지위향상이다. 정부는 재외동포의 뿌리가 한국인이라는 교육을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도 돕겠다.”

- 기존 재외동포재단과 재외동포청의 차이점은.

“과거 재단 시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일방적인 재외동포 지원 성격이었다. 하지만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가 거주국 주류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돕고, 재외동포는 모국을 돕도록 이끄는 동반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관련 정책수립과 사업이행을 일원화했다.”

- 재외동포청의 목표와 역할을 꼽는다면.

“지난 1월 2028년까지 재외동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력에 걸맞은 동포 보호 및 지원 강화 ▶한인 네트워크

크 구축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는 동포정책 목표를 세웠다.”

- 구체적인 사업 목표는.

“올해는 재외동포용 교과서, 외국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수록하는 프로젝트를 재외동포사회, 외교부, 국내외 민간단체와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한인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다.”

- 선천적 복수국적의 부작용과 예외적 국적이탈 승인 어려움이 여전하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등 동포사회가 아파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힘쓰겠다. 국적법 규정을 널리 알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신고 기한을 놓친 사람도 사후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 국적이탈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 복수국적 허용연령 완화가 시급하다.

“동포청은 허용연령 하향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 한인사회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 현장과 민생 중심의 재외동포청을 만들겠다. 무엇보다 ‘아 조국이 내 곁에 있구나’를 느끼게 하는 재외동포청이 되겠다. 감사합니다.”

김형재 기자

올여름 포토맥강 수온 기록 갱신 우려

예년 평균보다 10도 높은 수준

올여름 폭염으로 포토맥강 수온이 역대 최고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방지질조사국(USGS)은 매년 포토맥강 리틀 폴스 지역(VA 그레이트 폴스부터 워싱턴 D.C. 접경 지역)의 수온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 지역의 최근 50년대 7월 평균수온은 84.2도였으나 2011년에는 93.2도, 2022년에는 93.7도까지 올라갔다.

포토맥강을 비롯한 워싱턴 지역 하천이 유입되는 체사피만 수온도 90도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USGS는 “갑작스런 수온 상승으로 하천과 체사피만의 용적산소량이 부



족해져 강과 바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수온이 상승하면 강과 바다의 자정 기능이 약화돼 수질 또한 크게 나빠진다. 연방환경보호청(EPA)도 “수온 상승으로 인해 병원균과 녹조, 외래종이 증가하고 생태계 전반에 걸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기상당국은 최근의 강물 수온 상승으로 인해 천변 지역의 체감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높았다고 전하

도 했다. 체감온도는 기온 뿐만 아니라 습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데, 최근 강물 수온 상승이 근처지역 체감온도를 최대 120도까지 끌어올렸다.

워싱턴 지역은 이번주 낮최고기온이 100도에 육박하는 등 때 이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워싱턴 지역은 낮최고기온 90도 이상을 기록한 일수가 2022년 43일로 가장 많았으나 올해에는 이를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통합노인연합회 예비경선 투표 참여

워싱턴통합노인연합회 우태장 회장과 회원들이 연방상하원의원의 각당 후보를 뽑기위한 버지니아 예비경선이 실시된 18일,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방서를 찾아 투표에 참여했다.

우 회장은 “페어팩스 거주 아시안 한인비율이 20%이지만 투표율은 가장 저조하다”면서 “민주·공화당을 떠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우 회장은 “투표참여가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직결되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표본이 된다”고 말했다. 김은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K뮤지컬 '위대한 개츠비' 토니상 의상상 거머쥘다

한국인 단독 프로듀서 작품
한인 디자이너 린다 조 수상
4월 브로드웨이 개막 후 흥행
하나 김, 조명 디자인상 받아

한국 공연제작사 오디컴퍼니의 창작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가 '연극·뮤지컬 분야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 어워즈(토니상 시상식)에서 의상 디자인상을 받았다.

'위대한 개츠비'는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가 단독 프로듀서로서 브로드웨이에 올린 작품이다. 한국인 단독 프로듀서의 뮤지컬이 토니상을 받은 건 처음이다.

16일 뉴욕 링컨센터 데이비드 H 크 시어터에서 열린 제77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한인 디자이너 린다 조가 뮤지컬 부문 의상 디자인상을 받았다. 린다 조는 여주인공 데이비를 연기한 배우 이바 노블



1 '위대한 개츠비'로 토니 어워즈 뮤지컬 부문 의상 디자인상을 받은 린다 조. 2 '아웃사이드'로 뮤지컬 조명 디자인상을 공동수상한 UCLA 출신 하나 김.



2 '아웃사이드'로 뮤지컬 조명 디자인상을 공동수상한 UCLA 출신 하나 김. [로이터]

자의 드레스 10벌 등 350여 벌의 의상을 디자인했다.

린다 조는 앞서 2014년에도 뮤지컬 '젠틀맨스 가이드'로 토니상 의상 디자인상을 받았던 브로드웨이의 베테랑

의상 디자이너다. 2017년 뮤지컬 '아나스타샤'로도 토니상 의상 디자인상 후보에 올랐고, 워싱턴 DC 국립오페라의 '투란도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삼손과 데릴라' 등의 작품 의상도

담당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생후 9개월에 부모와 캐나다에 이민한 린다 조는 캐나다 맥길대를 나와 예일대 연극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토니상을 주최하는 아메리칸 시어터 원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그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위대한 개츠비'엔 특별한 게 많다. 프로듀서가 한국인이고 여주인공은 아시아인이며, 정말 특별한 일과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오디컴퍼니의 '위대한 개츠비'는 지난 4월 25일 뉴욕 브로드웨이 시어터에서 개막했다. 3주 만에 매출액 128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흥행에 성공했다. 당초 11월까지였던 공연도 내년 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선 뮤지컬 '아웃사이드'의 조명디자인을 담당한 한인 하나 김(김수연)도 수상 소식을 전했다. 하나 김은 동료 브라이언 맥데빗과 뮤지컬 부문 조명 디자인상을 공동 수

상했다.

김흥준 한국영상자료원장의 딸인 하나 김은 부친의 유학 시절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다. 한국에서 초중고와 대학(서울대 시각디자인 전공)을 마친 뒤, UCLA에서 무대 디자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0여년 간 뉴욕 링컨센터, 뉴욕 퍼블릭 시어터, 맨해튼 시어터 클럽 등 공연계에서 무대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이번에 '아웃사이드'로 브로드웨이에 데뷔했다.

뮤지컬 '아웃사이드'는 1967년에 출간된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맷 딜런, 다이앤 레인, 톰 크루즈가 출연했던 프랜시스 포드 코플라 감독의 동명 영화(1983)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1960년대 오클라호마주 털사를 배경으로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나뉜 라이벌 갱단 소속 젊은이들의 삶을 다뤘다.

'아웃사이드'는 조명 디자인상 외에 작품상과 연출상, 사운드 디자인상을 받아 4관왕에 올랐다. **홍지유 기자**

“내 간 같이 쓸래?”

아픈 5살 제자에 간 떼어주는 '천사 선생님'

한 유치원 선생님이 아픈 5살 꼬마 제자에게 자신의 간 일부를 떼어주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유치원 선생님 커리사 피셔(20)는 만성 간질환으로 간이식이 필요했던 제자 에스라 토착에게 자신의 간 가운데 30%를 떼어주기로 했다.

피셔는 2022년 버펄로 인근의 작은 마을 울던에 있는 한 탁아시설에서 에스라를 처음 만났다. 그리고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에스라가 간기증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셔는 먼저 에스라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뉴욕대학(NYU) 랑곤헬스를 찾아가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았다. 에스라의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기증 의사를 먼저 전했다가 성사되지 않으면 실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지난 5월 24일 병원에서 최종 간 기증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음날 피셔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헤이 에스라! 내 간을 같이 쓸래?”라고 적힌 팻말과 선물을 들고 에스라의 집을 방문해 간 기증 의사를 밝혔다.

피셔는 에스라의 사연을 알고 난 뒤 곧바로 가능하다면 간을 기증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서 실제 이식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뻐했다고 했다. 또 간이식 결정에 어떤 망설임



제자인 에스라(우)를 위해 간 기증을 결정한 커리사 피셔. [사진: 고펜드미 홈페이지 캡처]

도 없었다면서 에스라를 도울 수 있어 기쁠 뿐이라고 말했다.

에스라의 양어머니인 카렌 토착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토착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피셔의 기증 결정에 거듭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에스라가 생후 7개월 때부터 위탁 보호해오다 지난 2022년 7월 완전히 입양했다.

토착은 에스라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하려 했지만, 의료당국이 그가 7남매의 어머니이자 에스라의 주 양육자라는 점을 들어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수술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지명 기자**

중식당 용공 부지 개발 잠정 중단

주상복합 건물 신축 여건 불리
“개발권 판매·식당 재개 가능성”

LA한인타운의 대표적인 중식당 용공 부지에 세워질 예정이던 '버몬트 로프트' 개발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버몬트 선상(966 S. Vermont Ave.)의 용공 개발 프로젝트인 버몬트 로프트는 왕덕정 전 용공 대표와 제이미슨 프로퍼티가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을 추진했고 알케미 플래닝 컨설팅사가 설계를 맡았다.

버몬트 로프트는 6층 주상복합건물로 스튜디오, 1베드룸, 2베드룸 유닛 90개에 1층 2815스퀘어피트 소매 공간과 총 85대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지난해 2월 LA시 도시개발국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용공은 지난 1월 말 영업을 마치고 폐업했다. 3월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최근까지도 건물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공사 중단 가능성이 부동산 업계에서 제기되어 왔다.

중단 이유에 대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자재비와 인건비 등 개발 비용 급증 ▷더욱 깎간해진 건설 용자 승인 기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약세 등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왕 대표가 용공 부지 개발권(entitlement) 매각과 레스토랑 식당 재개라는 옵션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면 식당 영업 재개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으며 용공 자리인 만큼 중식



LA한인타운 버몬트와 올림픽 인근 용공자리에 건설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 조감도. [어바나이즈LA 캡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용공이 LA한인타운에서 지난 43년 동안 한인들이 찾은 대표적인 중식당으로 자리해온 만큼 식당 업자들이 용공 자리에 새 식당 개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요식업 관계자는 “9월경에 중식당 영업을 재개될 가능성이 크지만 용공이 다시 문을 열 것까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왕 대표에게 17일 오후 5시까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이은영 기자**

원조 가든 고깃집 '삼원가든' 미국 진출

내년 뉴욕 한인타입에 오픈

가든 고깃집의 원조로 알려진 삼원가든이 오는 2025년 미국에 진출한다.

1976년 '삼원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남북 고위급회담 오찬, 이산가족 상봉 환영 만찬 등을 열며 약 50년간 한

국식 고깃집 터줏대감 역할을 한 삼원가든이 미국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삼원가든의 모기업인 SG다인힐 박영식 대표는 지난 15일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2025 삼원가든 뉴욕'이라는 문구와 함께 주소가 적힌 뉴욕의 한

건물 사진을 올렸다.

박 대표가 게재한 건물 주소는 1270 Broadway다. 해당 주소는 뉴욕시 6가와 33가 교차로 남동쪽 코너로 뉴욕 한인타운 초입이다. 삼원가든 측은 아직 정확한 영업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박 대표는 지난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5년 초 오픈을 시사했다. **김정준 기자**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그들은 분명 살인을 했다... 반드시 책임 물어야”

조나단 정부친 정정식 선교사

재판은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사건 원인 철저히 밝혀야 하는 것

벨가든 지역 바이시클 카지노 주차장에서 보안 요원 5명에 의해 살해된 조나단 정씨는 4대 독자였다.

아버지인 정정식(82) 선교사는 아들만 잃은 게 아니다. 이 사건 때문에 둘째까지 잃었다. 딸(바네사 정)은 오빠의 사망 당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 본 뒤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버지 정씨는 그 동영상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볼 수 없었다. 재판은 17일부터 시작됐다. 이제 법정에서는 그 장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정씨는 차매를 잃는 아내와 함께 재판이 열리는 롱비치 법원 인근 아파트에

잠시 머물고 있다. 지난 15일 재판을 앞둔 정씨를 만나 심정을 들어봤다.

“지금 심정은... ‘분명한 건 그들이 우리 아들을 죽였다는 점이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사역 도중에 들었다. 처음에는 그날이 일을 가슴에 묻으려고 했다. 그런데 딸도, 사위도, 변호사도 모두 소송을 권하더라. 이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했다. 그래서 협조하기로 했다. 나는 승소가 목적이 아니다. 결국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 그게 무엇인지 밝히는 게 더 중요할 뿐이다.’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았는데... ‘조나단은 나중에 정부의 도움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다. 심리학자였던 동생도 그런 오빠를 심적으로, 의학적으로



바이시클 카지노에서 숨진 조나단 정씨의 부친 정정식씨가 본지와 인터뷰를 하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김상진 기자

정말 열심히 도왔다. 그날 조나단은 그 누구에게도 해를 가하지 않았다.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고 순순히 그들의 말을 따랐다. 그런데도 주차장까지 쫓아가서 그런 식으로 죽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이라는 것은...

“카지노에서 일어난 일이나 그들이 규정대로 일하든지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그건 그들의 일이지, 의무 아닌가.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건 그들의 의무가 아니다. 그 일은 분명한 불법이었고,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그 이후 딸도 잃었는데... ‘딸의 죽음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원래 딸은 소아과 의사가 되려고 했다. 그러다가 심리학자가 된 것이다. 오빠 때문이었을 것이다. 자기 오빠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심리학자로서 오빠를 옆에서 많이 도왔다. 그 누구보다 오빠의 상태를 가장 잘 알았다. 그런 아이가 그렇게 죽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딸이 떠나기 전 남긴 게 있나... ‘오빠가 죽고 나서 딸은 힘들다는 얘기를 전혀 안 했다. 그래서 그렇게 힘

든 상태였는지 몰랐다. 의사인 사위도 마찬가지였다. 심리학자라 해도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만큼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직도 딸과의 마지막 통화가 선명하다. 딸이 카지노 측 변호사와 길고 긴 테포지션 절차를 마친 뒤 그러더라. 이 소송은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한다고... 너무 중요하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하더라.”

“이 사건 때문에 자녀를 모두 잃게 됐는데... ‘죽음이란 건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아닌가. 딸의 죽음까지 겪으면서 심적으로는 오히려 힘든 걸 다 잊어버렸다. 분명한 건 지금 카지노 측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이 사회가 꼭 알아줬으면 한다.’

정영 기자

교직원연기금, 우리은행과 MOU

국내 최대 교직원연기금(TIAA)의 자산운용 자회사인 ‘누빈’이 한국 우리은행 및 우리자산운용과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누빈은 전 세계 32개국의 1300개 기관과 주요 연기금 등을 고객으로 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약 1조2000억 달

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글로벌 우량 인수금융, 인프라, 부동산 대출 투자 등의 기회를 공동 발굴하고 기업금융(IB)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너지를 확대해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펀드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은 지난 14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 ‘누빈’과 전략적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부 기동호 부부장, 누빈 장재호 한국대표, 우리자산운용 최승재 대표. [우리은행 제공]

“한국 원달러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거래”

다음 달부터 한국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새벽 2시(한국시간)까지 연장된다.

거래시간이 길어지면서 원화도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시간대에 실시간 가격으로 거래될 전망이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회는 지난 14일 총회에서 원달러 거래시간을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원달러

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새벽 2시로 길어진다.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결정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현물환중개회사는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오전 9시~새벽 2시에 매시 정각과 오후 3시30분의 시점 환율과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제공할 예정이다.

폭염·눈... 이번주 역대급 기상변덕

이번 주 전국에서 폭염부터 폭우, 눈까지 다채로운 기상 변덕이 펼쳐질 것으로 예보됐다.

16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기상청(NWS)은 이번 주 중서부와 북동부에는 찌는듯한 폭염이, 반대로 로키산맥에는 눈이 내리는 등 북서부에는 때아닌 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했다.

NWS는 이번 주 동부와 중서부, 오테호 지역에서는 기온이 화씨 90도(섭

씨 32.2도)를 넘는 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약 6300만명이 폭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일기예보 서비스 아큐웨더(Accuweather)의 톰 카인스는 이번 주 “중서부와 오하이오 밸리, 오테호 지역, 미드-에틀랜틱 지역(대서양에 접한 중부), 북서부 지역 등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화씨 90도를 넘는 기온

이 예상된다”며 “이 지역 중 일부에서는 기온이 화씨 100도(섭씨 37.7도) 가까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습도까지 더하면 체감온도는 9도나 10도 정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보통 이 정도의 폭염은 7월이나 8월에 온다”고 덧붙였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경우는 이미 이번 달 들어 첫 2주간 기온이 평년 같은 기간보다 화씨 5.6도 더 높았는데 이는 6월 초반으로서는 기록상 가장 더웠다고 NWS는 밝혔다.

오늘 ‘노예해방일’ 공휴일 관공서·우체국·은행 휴무

6월 19일 노예해방일(Juneteenth's day)을 맞아 연방 기관 및 은행과 우정국 등은 휴무한다.

대부분의 식당, 소매업체, 식료품점은 이날 영업한다. 2021년 6월부터 12번째 연방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개인 업체는 선택적으로 휴무를 결정

하고 있다. 우정국(USPS)은 수요일 당일 모든 우체국이 쉰다.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웰스파코,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PCB뱅크 등 대부분의 은행은 문을 닫는다.

주식시장도 수요일에는 휴장한다. 코스트코, 크로거, 월마트, 타깃, CVS, 월그린은 정상영업을 한다.

정하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우선협상대상자 사립대학생 대상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자산도 행복해집니다
주책투자 · 상업투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40
M&T 대장금(미라조울) 웨일리노래방
300m 뉴타운홈

숯세일, 포클로저 주택 Sale 전문 제임스 박 부동산
Ashburn Town H 급매!!
4 br 3.5 baths, End Unit Built 1996 \$520,000 (시세 \$60만)
Clifton Single 급매!!
6 br 7 baths, 3 Car Garage, 4,500sf, Built 1994 \$1,150,000 (시세 \$140만)
Centreville Single 급매!!
4 br 2 baths, Walkout B \$500,000 (시세 \$65만)
Centreville Town H 급매!!
3 br 2+2 baths, Walkout B \$390,000 (시세 \$49만)
Aldie Large Town H 급매!!
3 br 2.5 baths, 2 Car garage, 3,000sf, Built 2012 \$640,000 (시세 \$71만)
571.242.4500 james2424500@yahoo.com
NVAR 2012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Associate Broker 제임스 박
VA FAIRFAX HQ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바이든측, 고령 논란 '악마의 편집' 영상 확산에 고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는 우려를 부추기는 가짜 영상이나 '악마의 편집'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18일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전국위원회(RNC), 주요 보수 매체와 우익 인플루언서들은 바이든이 혼자 떠돌아다니거나 멍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제3자의 팩트체크와 바이든 캠프에 따르면 이런 영상은 의도적으로 편집됐거나 특정 각도에서만 촬영해 전체 맥락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영상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딥페이크'와 달리 포토샵처럼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칩페이크'(cheap fake)로도 불린다. 일례로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욕포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모금 행사 무대에 한동안 멍하게 서 있다가 옆에 있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특정 각도 촬영 또는 일부분만 보여주며 바이든 방황하는 모습 부각 "팩트체크가 거짓말 못 따라잡아"...바이든도 트럼프 영상으로 대응



모금행사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가운데)과 오바마 전 대통령(오른쪽).

이 손목을 잡아당기고 나서야 되찾는 영상을 보도했다. 그러나 앤드루 베이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박수하는 관중을 지켜볼 뿐이었다고 해명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몇 명은 뉴욕포스트의 해석에 반박했다.

NBC는 이런 영상이 기만적이라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존 우려를 증폭하는 효과

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 유권자들이 팩트체크보다는 온라인 확산을 노리고 만들어낸 짚고 자극적인 영상을 접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략가 겸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변인인 에릭 솔츠는 "거짓말은 100m 경기를 질주하는데 팩트체크는 해변을 거닐고 있다.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행사에서 다른 정상들을 두고 혼자 어디론가 가다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안내를 받아 되돌아오는 영상을 퍼뜨렸다.

그러나 편집하지 않은 영상과 더 넓은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한 한 군인에게 인사하려 한 것이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리시 수내 영국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예의를 지켰고 그들에게 하나씩 말을 걸려고 건너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일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서 의자가 없는데도 의자에 앉으려고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게재했다.

그러나 AP통신 검증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자리에 의자가 있었고, 특정 각도에서만 의자가 보이지 않았을 뿐 전체 영상에서는 의자가 보였다.

공화당은 이런 영상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NBC는 지적했다.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실시간으로 조 바이든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전 세계가 볼 수 있게 영상을 올릴 뿐이다"라고 말했다.

NBC는 영상 편집이나 왜곡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을 장악한 뒤로 공화당에서 과장과 거짓말 사이의 경계가 더 불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과 바이든 캠프는 가짜영상이 보수 언론 생태계와 우익이 장악한 온라인 공간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적극적인 팩트체크와 전체 영상 공개, 언론 접촉 등을 통해 주류 언론의 가짜영상 보도를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고 NBC는 전했다. 또 민주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수와 어색한 행동을 포착한 영상을 온라인에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다.

엔비디아, 장중 시총 1위 등극

MS·애플 제치고 첫 정상
월가 목표주가 또 상향 조정



움직이지 않다가 이날 본격적인 랠리를 보였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173% 오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날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젠 블라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한스 모세만은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종전 140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렸다.

이는 월스트리트에서 지금까지 나온 최고치로, 시가총액이 5조달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모세만은 "향후 10년간 전체 매출 구성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측면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속 가능성으로 인해 밸류에이션이 상향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회사 서스케한나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롤랜드도 엔비디아 목표주가를 종전 145달러에서 160달러로 올렸다. 이는 주가수익비율 멀티플(배수) 51.5배를 적용한 것이다.

롤랜드는 "이 회사가 변장하는 시장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멀티플이 합당한 것으로 본다"고 보고서에 썼다.

한편 블룸버그는 엔비디아 내부자들이 올해 들어 총 7억달러어치 이상의 보유 주식을 매각했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 가장 많은 양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AI) 칩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18일 장중 3% 넘게 오르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에 등극했다.

뉴욕증시에서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엔비디아 주가는 전장보다 3.54% 오른 135.62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상승 폭을 확대하며 역대 최고치를 거듭 경신했다.

장중 주가를 기준으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3천315억달러 수준으로 불어나, 마이크로소프트(MS)(3조3천248억달러)와 애플(3조2천765억달러)을 제치고 시총 1위에 올랐다. 이날 같은 시간 기준으로 MS 주가는 0.2% 내렸고, 애플 주가는 1.4% 하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지난 6일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에 올랐다가 이후 주가가 소폭 내리면서 다시 3위로 내려온 상태였다.

앞서 MS는 올해 1월 애플을 제치고 시총 1위 자리에 올랐으나, 지난 10일 애플이 AI 전략을 발표한 이후 애플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난 13일 종가 기준으로 애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이후 MS와 애플은 주가 등락에 따라 1위 자리를 놓고 앞지락뒤지락 해왔다.

엔비디아는 지난 17일 10대 1의 주식 액면 분할이 적용된 이후 주가가 크게

미국, '녹색 금' 멕시코 아보카도 수입검사 일시중단



미국 가정 식탁에 오르는 주요 농산물 중 하나인 멕시코산 아보카도(사진)에 대해 미국 당국이 수입 검사를 일시 중단했다. 농무부(USDA)는 멕시코 미초아칸주에서 재배하는 아보카도에 대한 수입 검사 절차를 한시적으로 멈추기로 했다고 미초아칸 주지사가 18일 밝혔다.

알프레도 라미레스 베도야 주지사는 이날 오전 멕시코 유명 라디오 방송 중 하나인 라디오포르모라 인터뷰에서 "멕시코 아보카도 자체나 관련 산업의 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로 관련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는 미초아칸주 다른 수출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 현지 언론 매체들은 지난 14일께 미초아칸 아라사 지역에서 발생한 미국 수입 안

전 검사관 2명 위협 사태와 관련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아보카도 생산지인 멕시코 미초아칸에는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돈을 갈취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국 단위 갱단이 수시로 폭력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일부 농민단체는 자경단 성격의 조직을 만들어 무력 방어에 나서기도 한다.

미초아칸 주지사는 최근 위협을 당한 미국 검사관들이 "멕시코 국적"이라고 밝히면서, "당시 위험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멕시코 주재 대사를 비롯한 미국 측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다"며 "(미 농무부에서) 이른 시간 안에 수입 검사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자국에서 아보카도를 재배하는 미국은 아보카도 수입 전 미국 농작물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질병을 옮기지 않을지 멕시코 현지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2022년에도 검사관에 대한 위협적인 메시지를 문제 삼아 약 일주일간 수입 검사를 중단한 바 있다.

초록색 껍질에서 착안해 '녹색 금'이라고도 불리는 멕시코 아보카도는 절반 이상 미국으로 수출된다. 현지 언론에서 추산한 미초아칸 아보카도 수출액은 연간 35억 달러다.

팝스타 팀버레이크,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



팀버레이크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다. 그간 '캔트 스톱 더 필링'(CAN'T STOP THE FEELING), '섹시백(Sexyback)', '슈트 & 타이'(Suit & Tie)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미국 빌보드 주요 차트를 휩쓸었다.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사진)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AP 통신이 익명의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팀버레이크는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날 롱아일랜드 동부의 새그하버 법정에서 유죄 인정 여부를 밝히

는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할 예정이다.

팀버레이크가 받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해당 경찰 관계자가 언급하지 않았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팀버레이크 소속사 측은 그의 체포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귀하의 후회없는 선택!!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670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달러 패권 흔들리나...전 세계 달러 비중 줄고 금 보유량 늘어

달러-금, 안전자산 경쟁

외환보유고 70%비중 달러
작년 5분기 58%까지 줄어
금 비중은 2차대전 이후 최고

최근 몇 년간 달러 가치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인의 달러 자산 보유는 늘어나는 반면, 각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 감소는 달러 패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달러 패권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미국의 국가 채무 증가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상황은 오히려 달러 패권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달러 대신 금을 선택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달러 비중 60% 아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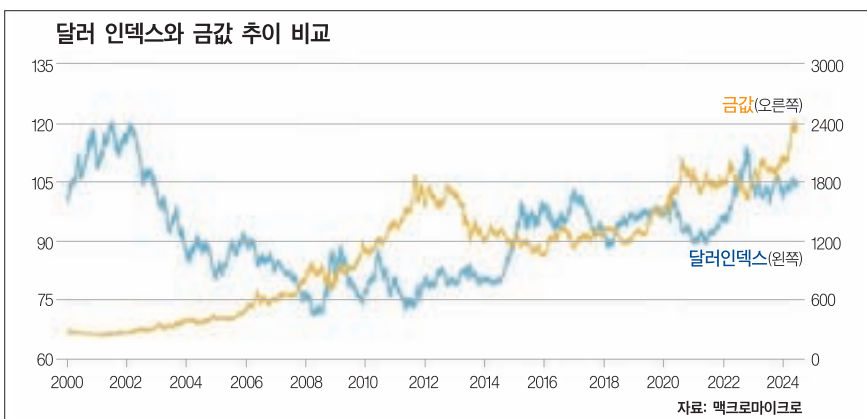
달러 가치는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유로화와 엔화 등 6개 주요 통화와 비교해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최근 105를 넘어서 연고점을 향하고 있다. 2022년 115에 근접하며 '킹달러'로 불렸던 시기보다 낮은 2008년 70으로 저점을 찍은 때와 비교하면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원화와 비교해서도 13일 원-달러 환율이 1379.3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지금보다 더 높았던 시기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던 1997~1998년 등 세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환율이 높다.

달러 인덱스는 높지만 달러 비중은 하락세다. IMF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통화구성이 확인되는 잔액 가운데 달러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59.46%를 차지했지만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4분기에 58.40%로 내려왔다. 20~25년 전만 해도 70%에 가까웠던 달러화 비중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세르칸 아스라날프 등 연구진은 최근 IMF 홈페이지 게시물에서 이런 흐름에 대해 "여전히 달러화는 주요 기축통화지만 비전통적 통화들에 계속 기반을 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화 비중이 다원화한 것도 특징이다. 달러 비중 축소분은 유로와 엔, 파운드 등 전통적인 통화 빅4모두 흡수되지 않았다. 위안화나 원화 등 비전통적인 통화로 흘러가는 현상을 보여



전 세계 정부가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을 늘리고 있다. 싱가포르의 귀금속 업소가 금괴를 보여주고 있다. [로이터]

“
세계경제 불확실 증가
미국·중국 환율전쟁
귀금속 가격 상승 여려요인

주목을 끌었다.
이 가운데 달러 비중 감소분의 25% 가량은 위안화 비중 증가로 이어졌는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위안화 국제화에 애쓴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는 이전보다 주춤한 상태다.
달러 비중이 더 줄었다는 의견도 있다. 환율과 금리 변화를 반영하면 달러 비중 축소 폭이 더 커진다고 시



으로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외환보유고 내 달러 비중 축소가 일정 정도 가려졌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에 금값 사상 최고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금은 달러 탈피 흐름을 타고 강력한 경쟁자로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금의 비중은 2018년 1분기 8.3%였던 것이 최근엔 14.29%까지 늘어났다. 국제 금 가격도 상승세다. 2015년 말 온스당 1046달러까지 내려갔던 금은 지난달 2450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기간은 두 자산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무력 충돌 이후 3주간 금은 10% 가까이 올랐고 달러인덱스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BI의 오드리 차일드-프리먼 전략가는 최근 달러화와 미국 국제 가격 흐름을 보면 달러화가 갖고 있던 안전 자산 성격에 의문이 들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발생하면 위험 기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화 선호도가 높아지는데 최근엔 금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JPM코언의 금·귀금속 전략 책임자 그렉 시어러도 지난달 22일 파이낸셜 타임즈(FT)와 인터뷰에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트레이더와 전문 원자재 투자자, 여타 매크로 펀드 등에서 자금 유입이 뚜렷했다"고 밝혔다.

각국의 금 보유량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는 사실도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달러보다 금이 더 주목받는 현실을 반영한다.

이런 배경에는 불안한 국제 정세가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

자 미국은 자국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다른 나라의 통화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 금융 제재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금은 자국 내에 보관할 수 있는 자산이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중국의 전체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가 채 안됐지만 지난해 4.3%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미국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에서 30%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금값 가격은 투자자들의 예상을 빚나가기도 한다. 지난해의 경우만 해도 금값 수요가 늘면서 재고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가격은 예상과 달리 하락했다. 올해는 공급이 늘고 있는데 가격은 반등했다. 일반적인 수요공급 원리에 맞지 않는 움직임이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원자재 비중은 2009년 8.8%에서 최근 1년 사이 2%로 폭 떨어졌다. 대신 주식과 채권 비중은 크게 늘었다. KLI 자산관리의 리카르도 레이만 최고투자책임자는 "요즘 시장은 근본적으로 모든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로 이를 설명했다.

금·귀금속 가격 상승 원인이 주로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노리는 펀드 등의 투자 증가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 회피가 아니라 장기적인 가격 상승 기대감이 원자재 투자 자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상품거래소와 런던 금·귀금속거래소의 비금속 분야 순투자포지션(가격 상승 예상 투자)은 5월 중순 260만 규모였다. 3월 초의 55만6000t에 비해 5배가량 늘었으며 2020년 말의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금값 뛰는데 작년 금 생산 0.5% 증가

금광 찾기 갈수록 힘들어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넘나들고 있지만 금 생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제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 생산량은 전년 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7%와 1.35% 증가한 것과 비교해서도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2020년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 생산이 1% 감

소한 것과 비교하면 호전된 것이지만 2년간의 증가세를 이어 가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유망지역 탐사가 대부분 이뤄져 새로운 매장지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본 집약적인 금 채굴은 상당한 탐사와 개발이 필요해 생산까지는 평균 10~20년이 걸린다.

또 매장지가 발견돼도 채굴이 가능한 정도로 매장량이 충분한 경우

는 10% 정도에 그친다.

지금까지 금은 대부분 중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등에서 18만 7000메트릭톤(mt) 정도 채굴됐다. 연방 지질조사국(USGS)은 채굴이 가능한 금 매장량은 약 5만 7000mt 정도로 추정한다.

여기에 정부의 금 채굴 허가도 갈수록 까다롭고 채굴 지역이 외딴 곳이어서 막대한 비용이 추가된다.

세계금협회(WGC)의 존 리드 수석 애널리스트는 "큰 그림에서 금 생산은 2018년께 정체를 맞고 성장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남들이 로봇 만들수록 돈 번다... 손 안대고 코 푸는 황

(엔비디아 CEO)

지난 3일 대만 타이베이 그랜드 하이 라이 호텔 3층 엔비디아 전시 부스에 들어서자 사람 크기 로봇 2대가 반겼다. 전날 컴퓨텍스 기조연설에서 “차세대 산업혁명이 시작됐다”고 선언한 황 CEO 옆에서 마치 그 혁명의 주인공은 자신들이라는 듯 무대를 돌아다니는 배달·순찰 로봇이다. 하나는 대만 PC·서버 제조업체 위스트론이, 다른 한 대는 한국 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가 만들었다. 모두 엔비디아의 소형 로봇용 칩셋 ‘젯슨’이 탑재됐다.

“엔비디아는 왜 지금 로봇을 얘기하나? “로봇 공학의 궤도를 바꿀 두 가지 기술이 이제 꽃을 피웠다고 판단해서다. 첫 번째는 당연히 생성 AI다. 로봇이 해야 할 작업은 다양한데 과거 딥러닝 방식에서는 특정 작업별 모델을 하나하나 훈련해야 했다. 이제는 범용 모델인 생성 AI를 통해 하나의 AI로 통합 학습(훈련)이 가능해졌다. 생성 AI로 로봇 공학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거다.”

“두 번째는 뭐냐. “디지털 트윈(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우리는 이를 10년 넘게 준비해왔고, 이제는 기술적으로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현실 세계에서 로봇을 만드는 건 고비용·고위험이다. 거대한 로봇 팔을 개발한다고 생각해보자. 어디로 뭉치 모르는 로봇 옆에서 테스트한다는 건 인간한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현실과 똑같이 재현해놓은 가상 환경에서 서려면 괜찮다. 이전 가상환경에서 AI를 탑재한 로봇을 얼마든지 훈련할 수 있다. 생성 AI와 디지털 트윈, 두 기술이 만나 로봇 개발에 새 시대를 열었다. 앞으로 10년간 로봇 공학은 무한하게 발전할 것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는 15년 전만 해도 전자업계의 변방이었다. 지금은 AI 학습·추론에 꼭 필요한 황금 기술이 됐다. 이를 주도한 게 엔비디아다. 그 결과 엔비디아는 테슬라·아마존·구글의 시가총액을 잇달아 넘어섰고, 최근엔 애플마저 무릎 꿇렸다. 그 엔비디아 손에 ‘로봇’이 있다. GPU를 ‘AI 학습에 활용해 성공했던’ 그 방식대로 이젠 자사 핵심 기술을 ‘로봇 학습에 쓰겠다고 한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AI 학습·추론에 사용되는 것처럼 로봇 학습에서도 엔비디아 플랫폼이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뜻인가? “정확하다. 다만 로봇에서의 AI는 데이터센터 기반 생성 AI보다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챗GPT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센



로봇 유망하다는 엔비디아, 왜 직접 안 만들까

모두가 ‘로봇’을 유망 기술이자 차세대 먹거리로 꼽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도 로봇에 ‘꽃힌’ 사람 중 하나다. 지난 3월 엔비디아 개발자컨퍼런스(GTC)에서 그는 사람처럼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깜짝 공개하며 “AI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고 소개했다. 엔비디아 로보틱스·엡지 컴퓨팅 사업을 이끄는 디푸 탈라 부사장을 지난 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단독으로 만났다. 그는 “엔비디아는 로봇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엔비디아의 시선은 그보다 높은 곳을 향했다. 엔비디아 ‘로봇 대장’에게 그들이 꿈꾸는 미래 로봇사업 전략을 들었다. 로봇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임원이 국내 언론과 하는 첫 인터뷰다.

이희권 기자

터로 답을 요청해서 받게 돼 있다. 이때는 데이터센터 한 곳에서만 AI 학습·추론이 진행된다. 하지만 로봇에서는 총 3곳에서 컴퓨팅 작업이 이뤄진다.”

“3곳에서 컴퓨팅?”

“우선, 데이터센터에서 AI를 훈련·추론시키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구동돼야 한다. 둘째는 로봇에 탑재되는 젯슨 같은 엡지 컴퓨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그 둘 사이에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옴니버스’ 기반의 컴퓨팅이다. 옴니버스에선 시행착오나 추가 비용 지출 없이 로봇을 훈련할 수 있다. 3개 컴퓨터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로봇을 훈련한다.”

현재 AI 학습·추론용 칩 시장 90%를 독차지한 엔비디아의 다음 시선은 이미 로봇 컴퓨팅에 가 있었다. 탈라 부사장은 말대로라면 로봇 학습·추론용 칩 시장은 단순 계산으로도 지금의 서버용 AI 칩 시장보다 3배 이상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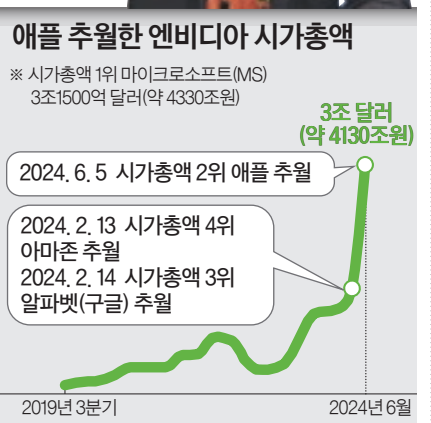
AI 탑재 로봇의 최종 목적지는 휴머노이드, 즉 인간을 닮은 로봇이다. 인간처럼 걷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려는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엔비디아는 개별 제품 개발을 넘어 로보틱스(로봇 공학) 시장에서 통용되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야심

을 지난 3월 GTC에서 드러냈다.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범용 모델 ‘그루트’(GR00T: Generalist Robot 00 Technology)를 공개하면서.

탈라 부사장은 그루트를 엔비디아 로봇 비전의 핵심이자 정점으로 꼽았다. 황 CEO 역시 “세상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로봇은 휴머노이드”라면서 “이



디푸 탈라



분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가 정의하는 휴머노이드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있다면, 가정이나 병원·상점에서 일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가 탄생한다면 미래에 가장 큰 로봇 시장 중 하나가 될 거다. 대부분 사람이 휴머노이드를 인간과 비슷한 하나의 폼팩터(기기 형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로봇을 휴머노이드라 규정짓는 요소는 로봇에 탑재된 지능이 어떤 학습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프로젝트 그루트란 무엇인가.

“그루트는 기본적으로 휴머노이드의 기초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다. 텍스트·음성을 사용하거나 영상 데이터 입력 및 학습을 통해 로봇 공학에서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초 모델을 만든다. 그루트를 통해 탄생하는 로봇은 모두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을 것이다. 자연어를 이해하고 인간의 행동을 관찰해 움직임을 모방하도록 설계된다. 실제 세계를 탐색하고 적응하며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민첩성과 여러 기술을 가상 공간에서 빠르게 학습할 것이다. 핵심은 학습이다. 마치 GPU가 AI를 학습시키듯 수천 가지 실험을 병렬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고 쉽게 로봇 테스트가 가능하다.”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언제 나오나.

“엔비디아는 이제 로봇 공학을 위한 플랫폼 회사다.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아이작, 젯슨 토르와 같은 휴머노이드에 이상적인 엡지 컴퓨터, 가상 세계에서 로봇을 로봇답게 훈련하는 디지털 트윈 옴니버스까지 (다 갖췄다). (그루트를 활용한) 엔비디아가 직접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품 출시 시점을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각종 로봇을 만들고 있는 수백, 수천 개 기업이 결국엔 우리 엔비디아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엔비디아의 메시지는 놀랍도록 명확했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엔진도 계속 엔비디아가 만들겠다.” 건축 자재에 해당하는 GPU와 집 짓는 도구에 비유되는 전용 소프트웨어 ‘쿠다(CUDA)’로 AI 칩 시장을 독점했던 엔비디아가 성공 공식을 고스란히 로봇에 가져와 또한 번의 독주를 준비한다는 뜻이다. 로봇 개발 시장에서도 표준 도구를 만들어 엔비디아 없이는 그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도 작동하지 않는 미래, 그리고 그 뒤에는 어김없이 엔비디아의 GPU가 있다. 엔비디아의 로봇 박력처다.

[AP=연합뉴스]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제,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약속같은 부동산
비키리

6월 HOT 리스팅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 집니다.

비엔나 타운홈

방3+화3+차고2
2001년, 2100sf
젤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페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

임대

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DB DONNA BELLA LASER MEDSPA®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젊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FDA 승인을 받은 최첨단 의료 장비로 당신의 10년을 돌려 드립니다.



- 머리→헤어 복원**
Laser Hair Restoration
- 얼굴→피부 레이저 치료 & 기미 제거**
Fractional CO2 Laser, Laser Melasma Treatment
- 눈썹→눈썹 문신 제거**
Eyebrow Tattoo Laser Removal
- 겨드랑이 & 다리→레이저 헤어 제모**
Laser Hair Removal
- 복부→바디 콘투어링 & 체중 감량 프로그램**
Laser Body Contouring & Weight Loss Program
- 다리→노출 혈관 제거**
Non Surgical Laser Vascular Treatments
- 발→발톱 무좀 치료**
Laser Toenail Fungus Treatment
- 질→질 회춘술**
Non Surgical Laser Vaginal Rejuvenation



DB DONNA BELLA LASER MEDSPA®
DONNABELLALASER.COM



Dr. 황지연
Jiyon Hwang-Ki, MD
BOARD CERTIFIED,
DIPLOMATE OF THE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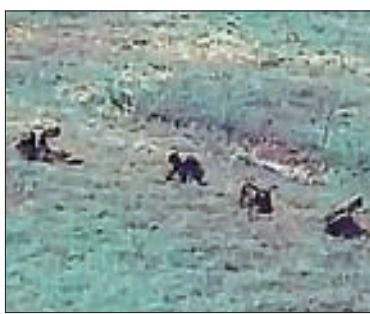
MD 락빌
T. 301.417.4975
15200 Shady Grove Rd. Suite 108
Rockville, MD 20850
Mon ~ Fri: 8:00am ~ 4:30pm
*Saturday by Appointment

VA 애쉬번
T. 703.443.4713
21785 Filigree Ct. Suite 206
Ashburn, VA 20147
Mon ~ Fri: 9:30am ~ 6:00pm
*Saturday by Appointment

VA 페어팩스
OPENING JULY 2024
13135 Lee Jackson Hwy. Suite 205
Chantilly, VA 22033
***직원 모집: Esthetician, Receptionist, Manager 그리고 NP or PA**

북한군, DMZ 곳곳 지뢰 매설작업... 폭발사고로 다수 사망

대전차 방벽 작업 등 경계능력 보강
9일만에 20~30명 MDL 또 침범
군, 경고 방송·사격하자 바로 복상



북한군이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뢰 작업 중인 북한군. [사진 합성]

최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작업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단절' 조치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인명 피해를 부를 만큼 무리하게 진행되는 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전선 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DMZ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

혔다. 북한의 관련 작업은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기존 합의에 따라 철거한 GP를 복원하는 데서 본격화했다.

북한은 지난 1월 GP 복원을 완료했고, DMZ 내에서 광범위한 지뢰 매설 등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4월부터는 DMZ 북쪽 2km 구간인 북방한계선 등 전선 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은 DMZ 10여 곳에서 해당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합참 관계자는 "한 곳당 많게는 수백 명이 동원되고 있다"며 "매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작업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동부·서부·중부 전선 일대에서 담벼락을 세우는 동향을 보이는 데 대해 군 당국은 "대전차 방벽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248km에 달하는 군사분계선(MDL) 전 구간에 베를린 장벽 같은 담벼락을 쌓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보다는 전차가 지나갈 만한 길목에 장애물을 설치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높이 4~5m인 해당 장애물은 DMZ 출입문 역할을 하는 통문 4곳에 짝게는 수십

m, 길게는 수백m로 지어지고 있다고 한다. 지뢰 매설의 경우 숲이 우거진 지역 또는 하천 등 관측이 어려운 MDL 인근에서 불모지화 작업과 함께 이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월남, 귀순 차단 등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또 북한군이 지난 9일에 이어 이날 중부전선 MDL 이남을 20m 가량 침범했다고 밝혔다. 9일과 유사하게 20~30명이 도가·삼·곡괭이를 든 차량세였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군은 경고방송 이후 경고사격을 했고, 북한군은 곧바로 복상했다. 지뢰 매설과 불모지화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 당국의 평가다.

이근영·이유정 기자

한국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 독일·일본 제쳤다

IMD, 67개국 평가... 전년보다 8계단 ↑
기업효율성 33→23위, 상승 이끌어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세계 20위를 기록했다. 일명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선 미국에 이어 2위다. 전체 성적표는 나아졌지만, 기업하기 좋은 여건만 따졌을 땐 하위권에 머물렀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8일 발표한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올해 한국은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IMD 평가 대상에 들어간 1989년 이래 가장 높다. 1년 전 28위에서 8계단 뛰어올랐다. 이전까지 한국이 기록한 최고 순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 22위(2011~2013년), 최저 순위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받아든 41위(1999년)였다.

이번 평가에서 싱가포르·스위스·덴마크·아일랜드·홍콩이 차례로 '톱5'를

차지했다. 대만(8위)·미국(12위)·호주(13위)·중국(14위)·캐나다(19위)도 한국을 앞섰다. 독일(24위)·영국(28위)·프랑스(31위)·일본(38위)·스페인(40위)·이탈리아(42위)는 한국에 밀렸다. 한국이 독일을 앞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IMD는 1979년부터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기업 효율성 ▶인프라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4개 분야를 평가해 국가별 순위를 매긴다. 쉽게 말해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기업이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따진다. 각종 통계 지표와 기업인 설문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에서 한국은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가 지난해 33위에서 23위로 올라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생산성·효율성(41위→33위), 노동시장

(39위→31위), 금융(36위→29위), 경영 관행(35위→28위), 태도·가치관(18위→11위) 등 5개 세부 항목이 골고루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도 같은 기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상승했다. 기본(23위→14위), 기술(23위→16위), 과학(2위→1위), 교육(26위→19위) 등 항목 순위가 오른 결과다. 다만 보건(14위→27위) 항목 순위가 떨어졌다. 박은정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장은 "설문 시기(올해 3~5월)를 고려할 때 의대 전공의 과업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 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두 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위→34위) 등 국내경제 부문 순위가 11위에서 7위로 올랐지만, 국제무역 부문 순위가 42위에서 47위로 떨어져 빛이 바랬다.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도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다. 특히 세부 항목에서



기업 여건(53위→47위)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조세정책(26위→34위)도 경쟁력이 떨어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정부가 기업을 다루는 규제, 공정거래, 조세 3개 바위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며 "특히 최근 5년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하고(규제), 대기업을 옥죄고(공정거래), 법인세·상속세 부담이 커지는(조세) 등 기업 여건이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효율성 순위는 종합 순위와 견줘 큰 차이가 없었다. 순위 차가 벌어진 건 2020년부터다. 2020년 종합 순위(23위)와 정부 효율성 순위(28위)가 5계단 차이가 나더니 지난해 10계단, 올해 19계단까지 벌어졌다. 홍기용 교수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정부 정책을 좌우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며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201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정부

"김호중 구속될 일이나" 팬들과 달리...법조인 "징역 30년 가능"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징역 30년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법조계 전문가가 분석했다.

박주희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 뉴스케어 2PM'에 출연해 "김호중씨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경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났다. 음주운전 뺑소니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희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라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19일까지로 열흘 연장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1차(최장 열흘) 연장할 수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 박 변호사는 "검찰의 결단이 남은 것 같다"며 "구속 기간이 이를 낚았기 때문에 이를 안 에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석방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돼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굉장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더구나 김씨는 단 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국민 정서상 과실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하수영 기자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희스프링 아동 가족 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모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 이중언어자 환영

예약 상담제 | 각종 건강보험 취급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703-259-5617, 410-241-2520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1,11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레스턴 콘도

\$426,000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로턴 타운홈

\$580,000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고급가구 Moving Sale 합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 바랍니다."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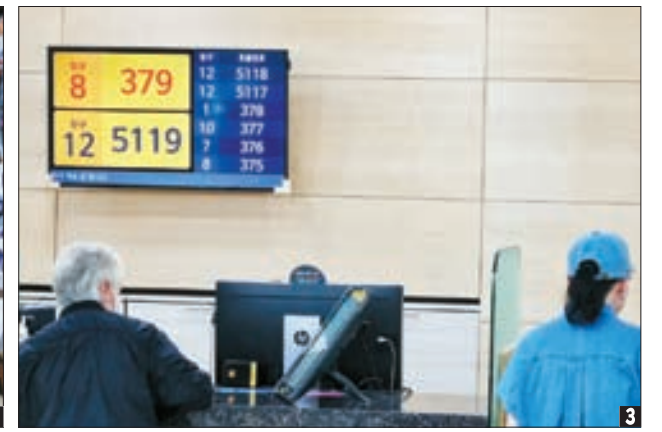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휴진불참 의사들 “의대증원? 이미 끝나” “매달 적자 힘겨워”



1 18일 오전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혈액종양내과 서터가 열리자 환자와 보호자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2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3 서울아산병원 외래접수처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이보람·전민규·박중서 기자

병원 지킨 의사들, 이유는
 “내가 봐도 밥그릇 지키기로 보여”
 “반겨주는 환자, 휴진하기 어려워”
 “지금처럼 하면 안돼, 결속이 우선”

의사협회가 주도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가 훨씬 많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불참했고, 이 중 집단 휴진의 실효성이나 정당성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의 한 개원의는 “집단휴진을 하려면 의대 증원 논란이 달아오르던 3, 4월에 했어야 효과를 극대화했을 텐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하더니 참 여할 필요를 못 느꼈다”며 “의사협회나 의대 교수가 의대 증원 재논의를 주장하는데, 이미 끝난 마당에 뭘 어쩌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의사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집단휴진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참여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 화난다고 환자 결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다”며 “나갈 때(집단휴진에 동참하는 것)가 됐다고 판단되면 그러겠지만 지

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오늘(18일) 문을 열었더니 환자가 ‘원장님 문 닫을 줄 알았는데 열었네요’라고 반기더라. 환자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휴진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 구별로 구단위 의사 모임을 하고 시 단위로도 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결속력을 다져야 하는데 지금의 식으로는 안 된다. 대열을 잘 갖추지 않고 싸우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며 의협의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지방의 한 원장은 “2월부터 매달 적자가 쌓인다. 보험 해지 등으로 겨우 버티

는데 하루 쉬면 손실을 메울 방법이 없다”며 “게다가 인근의 병·의원도 문을 여는데 우리만 문을 닫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휴진에 동참하지 않아 주변에서 욕을 먹어도 내 코가 석 자라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의 약분업 반대 집단휴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중소병원 의사는 더 싸늘하다. 50대의 한 월급쟁이 의사는 “국민이 보기에 밥그릇 지키기처럼 비칠 것이어서”라고 했다. 그는 “의사인 내가 봐도 밥그릇 문제처럼 보인다”며 “국민 눈에는

‘어떻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의사들이 분노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증원이 야기할 문제점을 긍정성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 국민 공감을 사야 하는데, 의협에 전략가가 없다. 고함쳐서 뭘 얻으려는지 모르겠다. 국민과 더 멀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의 한 병원은 의사 50여명 중 연차휴가를 낸 사람이 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사들이 환자를 두고 나서는 데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성서 복지전문기자, 황수연·채혜선 기자

“연차 낸 교수 10명 미만, 영향 적어” 삼성·아산·성모 진료대란 없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면 집단 휴진에 나섰지만 이른바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진료하면서 큰 혼란은 없었다. ‘빅5’ 병원은 서울대·신촌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등 서울 소재 5개 대형병원을 일컫는다.

이날 오전 7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

병원. 이른 아침부터 진료나 검사를 받으려는 환자와 보호자 등이 병원을 찾았다. 오전 8시10분 혈액종양내과 진료 공간의 서터가 올라가자 문 앞에서 기다리던 환자와 보호자 10여 명이 일제히 들어갔다. 종양내과에서 치료받는 80대 모친과 병원을 찾은 백모(60대)씨는 “걱정했는데 다행히 진료가 연기되

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전체 교수진 600여명 중 약 1.6%만 자리를 비웠다. 의협 휴진에 동참하려고 연차를 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 병원 관계자는 “10명 미만의 교수가 연차를 냈다”며 “진료 등 병원 운영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반포

동 서울성모병원. 일부 의료진이 휴진했지만, 대부분의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휴가간 교수가 10명 정도”라고 전했다. 서울 풍납동 서울아산병원도 대부분의 과에서 정상적으로 진료와 수술이 진행됐다. 다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끝이 안 보이는 의·정 갈등에 불안감

을 감추지 못했다. 항암치료 차이를 전 지방에서 상경해 이날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박모(70)씨는 “오는 7월부터 교수들이 휴진한다고 하니 압박과 불안감을 느낀다”며 푸념했다.

통원 치료 중인 백혈병 아들과 함께 온 보호자 김모(54)씨도 “의료계 집단 행동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는데, 최근엔 2주에 한 번씩 온다”며 “언제 정상화될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보람·장서윤·박중서 기자

나경원, 출마선언 임박... 여당 전대 ‘반윤 vs 비윤’ 구도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23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18일 가닥을 잡았다. 복수의 여론 인사 설명을 종합하면, 당내 여성 최다선이자 수도권 5선인 나 의원이 이른바 20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측근들 사이에선 “나 의원이 어제오늘 마음을 정한 것 같다” “캠프 실무진 구성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과거 나 의원과 함께 원내지도부에 몸담았던 전직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출마 쪽으로 결심하신 것은 맞다. 캠프 구성 등은 알아서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적극

적으로 생각해서, 월요일(24일)이 후보 등록일이니 그 전에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나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진 의원을 연쇄 접촉하며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고 한다. 최근엔 “한동훈 대항마”로 나서는 게 좋겠다”는 권유가 여러 경로로 나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중진 의원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선 패장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바로 대표 선거에 나서는 건 안 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과 4·10 총선



나경원

국면에서 갈등을 빚었던 친윤 세력이 몰림에서 나 의원을 지지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친윤 핵심 의원은 “우리는 후보가 없고, 나 의원은 세력이 약하다”며 “나 의원이 깃발을 들면 상당수 인원을 규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한 전 위원장의 우위가 뚜렷하다. 다만 ‘한동훈 대세론’이 실제 전당대회에서 그대로 통할지는 미지수다. 한 전 위원장이 대중적 지지도는 높지만, 당내 경험이 적고, 친한 세력이라고 불리는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인 나 의원의 응집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전당대회에선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가 반영된다. 친윤 인사는 “친한계라는 인사가 당에서 무슨 지분을 주장할 수 있나”라며 “나 의원은 대중성도 있고, 원내대표 등 당내 경험이 풍부해 보수 정통성을 주장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한동훈 대세론’에 대한 반발도 잇따른다. 친윤계인 유상범 의원은 18일 라디오에서 “현재 단계에서 여론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한 것이 맞지만 ‘한 달간의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어대 한은 적극적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나 의원은 친윤계가 자신을 지

원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친윤이든 비윤이든 날 지지하면 지지하는 것”이라며 “(특정 세력이) 누굴 밀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권 주자로 불리는 유상현 의원은 대선 1년 6개월 전 대표직을 사퇴하도록 한 대권·당권 분리 당헌·당규 규정을 거론하며 “한 전 위원장은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고 임기를 채울 생각이나”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윤 의원은 출마 의지를 굳히고 구체적 출마 선언 장소 등을 모색 중이다.

심서용·이창훈 기자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Ex: 현 60세 남성 -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계좌로 정기금회 비용이 입금)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종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White Oak T: 412 681 8505 Shady side T: 412 681 8505 South side T: 412 681 8505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1985 Lincoln Way Suite #15 5438 Centre Avenue 144 South 20th Street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Pittsburgh, PA 15232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개는 언론 별칭”... 궤변으로 점철된 야당의 ‘막말 보호 운동’

현장에서

이재명 ‘애완견 언론’ 발언 놓고 “비하 아니다” 너도나도 감싸기 노종면·이해석 “학계 용어” 주장 이재명 “일부 언론의 문제” 해명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오른쪽)이 첫 전체회의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론은 검찰 애완견” 발언의 후폭풍이 끊이지 않는다. 소속 의원들이 앞다퉀 이 대표 옹호에 뛰어들면서 외려 논란이 커진 모양새다. 선봉에 선 건 YTN 해직기자·노조위원장 출신 노종면 의원이었다. 그는 이 대표 발언(14일)이 ‘언론 비하’ 논란에 휩싸이자 “권력에 유리하게 프레임 만들어주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애완견(lapdog)이라 부른다”(16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식하거나 듣는 이가 무식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고쳐야 언론 비하. 망언 따위 반응이 나올 일이다”고도 했다.

이해석 수석대변인은 “언론학에서 널리 공인되는 공식적 용어를 인용해 항변한 것”이라며 거듭되고 추미애 의

원은 “언론은 전문하고 추궁하고 대담이 없거나 틀리면 무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Dog(개)’은 예전부터 언론에 붙여진 별칭”이라고 가세했다. 국회 상임위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반복됐다. 유튜브에서 “기레기(기자+스레기)”라고 하시는, 왜 그렇게 격조 높게 애완견이라고 해서 비난을 받는지 모를 일”이라고 비아냥댔던 양문석 의원은 18일 문체위 회의에서 “조선일보사류 자칭 언론을 향해 검찰 애완견이라고 했다는데,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 상당히 발작 증세를 보인다”며 조롱했다. 과

방위에선 최민희 위원장이 돌연 위치 독·랩독·카드독을 언급한 과거 방송 영상을 재생한 뒤 “영상을 보고 약간 목이 메는 것 같다”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남겼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맹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공공연하게 언론을 적대시하는 상황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당 대표와 의원의 발언을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발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언론

단체의 성명에도 격하게 반발했다.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발언과 입장에 언론 폄훼가 있단가. 어느 대목이 망발인가”라며 “(이 대표가) 일부 언론의 특정 보도 행태를 지적했음에도 싸잡아 비난한 것으로 비약하고, 본질보다 외양을 부각해 뉘그러자는 거냐”고 대꾸했다.

‘해직기자’ 타이틀로 국회의원 배지를 거머쥔 그가 이 대표 나팔수 역할을 자처한 건 사실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18일 광주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낼 때 비로소 뿌리

가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라고 말한 뒤, 청중을 향해 마이크를 돌려 “이재명”이란 대답을 유도했다. 그는 재차 “누구라고요?” “안 들립니다!”라며 더 큰 호응을 유도한 뒤 “대표님을 (연단으로) 모시겠다”고 말했다. 학계 용어를 끌어오자면, 그 모습이야말로 권력자 이 대표 앞 ‘애완견’이 아닐까.

이미 국회의원(국회의원+개), 견찰(犬+경찰), 개저씨(개+아저씨) 등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건 초등학교도 알 만한 비하 표현이다. 검찰 추가 기소에 격앙된 이 대표가 ‘애완견’이라는 단어를 꺼낸 건 민주당 주장대로 학술논문 염두에 뒤서일까, 아니면 언론에 대한 적대감 때문일까.

이 대표는 18일 “일부 언론의 문제점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해 언론 전체의 비판으로 이해하게 했다”며 이는 저의 부족함 탓이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벌어진 ‘애완견 논쟁’은 민주당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정용환 기자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 추진

대장동 수사검사 탄핵안 발의 방침 세수결산·재정파탄 청문회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단장 민형배)은 최근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박 부부장 검사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1심에서 9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해 왔다. 대책단 관계자는 “박 검사에 대해선 모해위증 교사로 탄핵안 발의가 가능한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불리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해 왔다.

대책단은 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검사였던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

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진술 ‘뒷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21대 국회 당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발의에 이어 네 번째다. 안 검사의 경우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됐고, 손·이 검사 탄핵 심판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용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세수 결산과 관련한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탄핵 추진 등에 이어 경제 분야에서도 대정부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데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세수 결산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부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감세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서민이 아닌 부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댕긴

민주당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달 8일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의 전향적 개선을 언급했다. 그러다 대통령실이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고, 상속세율은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16일)며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돌입하자 외려 “올스톱”하는 분위기다.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때가 아니라 공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확장적 재정 정책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 의장은 “지금 정말 급한 건 민생지원금으로 내수를 살릴 조그마한 마중물이라도 붓는 일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세수 결산 비판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그러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가 많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수도권 중산층을 파고드는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가 크다”고 말했다. 성지원·김정재 기자

방송 3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공포 즉시 시행” 부칙도

개의 1시간만에 의결, 법사위 회부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만료 전 속도 여당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의도”

법안 심사엔 20분, 의결까지 1시간이면 족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등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2대 국회에서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법안 의결을 강행한 첫 사례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9명과 개혁신당·조국혁신당 의원 각 1명 모두 의결에 찬성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의 추천 방식을 바꿔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현재 9~11명인 KBS·MBC·EBS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대통령과 여야가 가진 이사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로 확대했다. 또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설립해 3명 이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장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도 추가했는데, 민주당 측은 “3년 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뀐 사장의 임기가 보장돼 방송 환경이 안정된다”(한준호 의원)고 주장한다. 방통위법은 방통위의결 때 최소 출석위원 수를 4~5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은 8월에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방송3법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추가했는데, 8월 전에 공포돼야 KBS·MBC 새 이사 선정 시 바뀐 법의 적용을 받는다. 민주당 과방위원은 “7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방송장악법을 저지하겠다”고 반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사장으로 임명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은 야당 권력이 입맛대로 주무르고 장악하는 대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강보현 기자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 주택 매매(주거용, 투자용) · 상업용 부동산 매매 · 법원 경매(Auction)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대표 세리 린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비 이민비자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뱃방)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뉴욕 오피스 **646-256-9156 (Kor) 212-739-0843 (Eng)**

버지니아 오피스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고법 “판결문 수정, 재산분할 영향 없어” 최태원 측 “오류 정정에도 판결 영향 없나”

반박·재반박 이어지며 공방 지속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수정(경정)한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판결문의 일부 수정은 있었지만, 재산분할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번거롭게 해드

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 까지 최종현 선대회장에서 최 회장에 게로 계속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사실 관계에 대한 계산 착오를 수정한 것”이라며 “이는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기준 SK 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 분할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해 판결문에 반영했다.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오류를 지적하자 재판부는 같은 날 판결문 가운데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

장 측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설명을 재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가 기존 판결문에서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텔레콤 주가가 35.5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더니 이번 설명자료에서는 1998년부터 2024년 4월 까지 대한텔레콤 주가가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며 “판결문을 추가로 수정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적 혼인 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 기여도를 다시 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기여도와 관련해서도 “오류 전 12.5배 대 35.5배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배 대 160배로 변경하였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 안팎에선 “담당 재판부가 (소송의) 당사자와 장의 공방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판결로만 말하는 게 판사”라며 “당사자의 재판 불복에 재판장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영혜·윤지원 기자

눈물 흘린 박세리 “아버지 채무문제 반복됐다”

“은퇴 후부터 지속, 감당 힘들어져 박세리희망재단, 영리활동 못 해”

골프 선수 출신 감독 박세리(사진)가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친 고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박세리 부친은 국제골프학교 설립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박세리가 직접 참석했고 그의 법률대리인 김경현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다.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등장한 박세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세리는 부친과의 관계에 대해 밝혔다. 그는 “나는 내 길을 갔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길을 갔다. 그게 내가 해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었다”며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꽤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전에도 있었는데 점차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커졌다”고 부친의 채무에 대해 밝혔다.

김경현 변호사는 “박준철 씨는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재단에서 어떠한 역할이나 직책도 없고 업무도 수행한 적 없다”며 “재단은 영리법인이 될 수도, 영리활동을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새만금테마마을 국제골프학교 개발사업 참가의향서의 진위 확인 요청이 들어왔다”며 “요청을 받고 위조서

류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박세리는 “2016년 은퇴 이후 이런저런 상황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문제점을 알게 됐다”며 “조용히 해결하려 했었지만 채무 관계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왔다. 그게 시발점이 됐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박세리는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에서 공개한 대전집 경매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아버지의 채무와 관련된 집 경매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와 있었다”라며 “그 일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현재는 경매에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채무 변제를 하고 제 명의로 집을 인수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론에서는 모든 게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으로, 오래전부터 제가 알지 못한 부분까지도 문제를 드러내고 있었다”며 “몰랐던 부분도 있지만, 오해가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장마 이르면 오늘 밤부터 시작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18일 서퍼들이 파도를 즐기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장마가 19일 밤이나 20일 새벽 제주에서 비가 내리면서 시작하겠다고 예보했다. 당분간 장맛비가 예상되지 않는 중부지방은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뉴시스]

‘참전용사 딸’ 이영애, 군에 또 5000만원 기부

“아버지·시아버지 모두 참전용사” 천안함재단 이어 위문음악회 후원

배우 이영애(사진)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군인들을 위로하는 음악회 후원에 나섰다.

KBS교향악단은 오는 20~21일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와 파주 DMZ 접경지역 부대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음악회’에 이영애가 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전방 군인들을 위로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행사에 이영애가

기금을 쾌척한 것이다.

이영애는 “제 아버지와 시아버지께서도 6·25를 몸소 겪으신 참전용사”라며 “이번 공연과 후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애는 지난 17일에도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데 써달라”며 재단법인 천안함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김지혜 기자

40대 구급대원, 떠나면서도 5명에 새 삶 선물

20년간 소방 구급대원으로 일한 40대 여성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원증원은 지난달 23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김소영(45·사진) 씨가 심장·폐장·간장·신장(좌·우)을 뇌사 장기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6일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구급대원으로 20년 근무했고, 평소 다



른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김씨의 뜻에 따라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

김씨는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리면 받는 ‘하트 세이버’를 5개 받은 우수 구급대원이다. 각종 재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구조활동을 해 전라남도사회에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정혜정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정문기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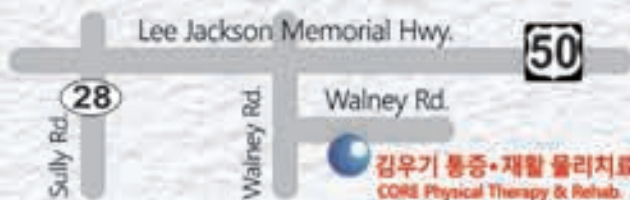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우리말 바꾸기

‘-시키다’의 남용

“너 거짓말시키지 마!” “왜 나한테 거짓말 시켰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표현에는 어폐가 있다. ‘시키다’는 남에게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거짓말을 시키다’는 ‘남에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다’는 말이 된다. 위 표현은 모두 남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이 아닌,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너 거짓말하지 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와 같이 고쳐야 바른 표현이 된다.

이처럼 ‘-시키다’를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불필요하게 ‘-시키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 당신에게 제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시켰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왔다” 등이 모두 그러한 사례다.

문장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사동 표현이라고 하는데, ‘-시키다’를 붙이면 사동 표현이 된다. 위 예문은 모두 사동의 의미가 없는 데도 사동 표현이 남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남을 시킨 것이 아니라 문장의 주체가 스스로 행한 행위이므로, “사무실 리모델링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왔다” 등처럼 ‘-시키다’를 ‘하다’ 형태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발언대

즉각적 조치를 요구한다



조만철 정신과 전문의

지난 1일 LA한인타운 월서 광장에서 열린 ‘양용 사건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50년 경력의 정신과의 사로서 이번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다.

LAPD(LA경찰국)에 따르면 양용 사건은 앞으로 몇 달 더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사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보면 보통 경찰의 자체 조사에만 1년가량이 소요되고 그 후 검찰 등에 사건이 이관되면 추가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기에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왜냐하면 ‘양용 사건’을 계기로 많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어 상당히 걱정된다.

40년간 지켜본 결과 그동안 LA카운티 정신 건강국과 LAPD는 많은 정신질환 환자를 도왔다. 특히 정신 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 등에서는 LAPD에 대한 신뢰가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신뢰 관계는 지속되어야 한다.

양용씨의 비극적 죽음이 발생한 날이 5월 2일 인 점을 고려해 이번 사태를 ‘5·2 사건’이라 부르

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이날이 ‘정신 질환자 보호의 날’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개된 경찰의 바다캠 영상을 보면 당시 출동한 경관들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정신 질환자와의 대화는 일반적인 대화 방식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 동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는 경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젊은이가 어이없게 숨진 이 사건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뿐 아니라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많은 정신 질환자(자폐 스펙트럼, 조울증, 분열증, 우울증)와 그들의 가족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것은 물론 경찰에 대한 공포심까지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정신 질환자도 돕는 LAPD에 정신과 의사로서 몇 가지 충고를 하고 싶다.

첫째, 충격 경찰관은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무기소지 면허도 취소하라는 것이다. 둘째, 충격 경찰은 또 다시 시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즉시 정신 감정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셋째, 경찰 당국과 LA시, LA카운티 정신 건강국은 즉시 재발 방지와 주기적인 점검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정신 질환자와 가족들이 더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충격 경찰을 기소해야 한다.

지금 많은 정신 질환자와 가족이 경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나 형제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이들이 경찰 총격으로 숨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양용씨에게 충격을 가한 경찰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생명 존중 의식이 없는 경찰을 일벌백계한다는 의미에서다.

자녀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양용씨 부모와 그들을 돕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열린광장

내면의 평화와 행복



손국락 보잉사 시스템공학 박사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불필요한 것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법정 스님이 1998년 2월 24일 명동성당 강론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오래 전에 읽었던 존 스타인벡의 ‘진주’를 떠올리게 된다. 이 소설은 스타인벡이 바하 캘리포니아의 라파즈에서 전해 들은 진주 잡이 어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한 쪽의 그림같이 묘사한 훌륭한 작품이다.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물질적 부와 소유에 대한 집착이 결국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파즈 항구에서 가까운 바닷가에 원주민 청년 키노가 그의 아내 주애너와 갓난아기 코요토를 데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아기가 전갈의 독침에 쏘이게 된다. 키노는 읍내의 백인 의사를 찾았으나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한다. 그날 키노는 아기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진주를 채취하러 갔다가 은백색 광채를 내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를 발견하게 된다.

소문이 퍼지자 신부가 찾아와 교회에 헌금하

기를 권하고, 의사와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진주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날 밤 도둑이 들어 칼부림이 일어나자 아내 주애너는 진주를 버리자고 주장한다. 다음 날 키노는 진주를 팔러 읍내 진주상인에게 갔으나 상인들이 서로 짜고서 혈값을 부르는 바람에 분개하여 수도로 가지고 가서 팔겠다고 말한다. 그날 밤 도둑의 습격을 받고 키노가 상처를 입자 주애너는 몰래 진주를 바다로 가지고 가서 던지려다가 키노에게 들켜 매를 맞는다.

그 후 다른 도둑과의 싸움에서 결국 살인을 하게 된 키노는 어둠을 틈타 가족을 데리고 마을을 빠져나간다. 추적자 세 명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키노는 밤에 추적자들에게 덤벼들어 칼로 찌르

고 총을 빼앗아 그들을 살해한다. 그러나 잠시 후 키노는 아기가 추적자가 쏜 총에 맞아 죽은 사실을 알게 된다. 얼마 후 키노와 주애너는 라파즈로 돌아와 그 진주를 바닷속에 던져버린다.

이 소설은 물질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삶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엔 가장 귀한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 항상 영혼의 맑음과 밝음을 유지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스트레스나 피로는 영혼의 맑음을 흐리게 할 수 있다.

키노와 그의 아내 주애너가 세상에서 가장 큰 진주를 바닷속에 던졌듯이 우리도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욕심은 부리는 것이 아니고 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꽃을 버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강을 버리지 못하면 바다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변호사 임종범 *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격정도 많고, 공정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40년 전의 생존 고민, 지금 다시 하는 이유는”

독립운동가 손녀로 ‘여성 1호’의 삶 개척해 온 문수복

문수복(59), 일반인에겐 낯선 이름이지만 전산(컴퓨터공학) 분야에선 설명이 필요 없는 글로벌한 명성의 정보기술(IT) 전문가다. 일찌감치 소셜 네트워크(SNS)의 폭발적 성장을 예견한 그의 논문들은 지금까지 총 2만 4000회 이상 인용될 정도로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세계 각국에서 1000명 넘게 온 WWW(월드와이드웹) 콘퍼런스를 서울에 유치하는 등 주요 국제 학회에서의 존재감도 상당하다. 이런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2019)·장관표창(2024), 유수의 국제상도 여럿 받았다.

남녀 차별이 만연한 1960년대 태어나 남성이 주도해 온 공학 분야에서 거둔 성과이다 보니, 그를 만나면 여자라 겪어야 했던 고충과 이를 극복한 여정에 대해 대화하게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여성이라 누렸던 특권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시에 KAIST 1호 여성 교수, 1호 여성 정교수 등 ‘여성 1호’로 늘 주목받았던 자신과 달리, 여전히 한 줌의 ‘소수자(마이너리티)’로서 불공정을 겪는 후배 여성 공학도들을 돕고 싶어했다. 또 성별을 떠나 후배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사실 이번에 문 교수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것 역시 그가 키워낸 ‘1호 제자’와의 관계가 궁금해서였다.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기초과학 연구소인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MPI) 단장에 선임돼 최근 흥진기 창조인상을 받은 차미영(45) KAIST 교수 얘기다. 토종 국내 박사이자 여성이 이런 막중한 자리에 오른 데는 그의 박사 지도교수인 문 교수 공이 작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말 대전 KAIST 문 교수 연구실에서 4시간 가까이 들은 인생 이야기를 그의 시각으로 재구성했다.

여자라서 누린 특권

국비 장학생으로 떠났던 박사 과정(엠베스트)과 연구소 생활(스프린트 ATL)하느라 10년 넘게 미국에서 혼자 살다 보니 집이 그리웠다. 한국 행결심 후 선택한 곳은 부모님이 사는 서울(서울대)이 아니라 아무 연구 없는 대전(KAIST)이었다. 돌아보면,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당한 거였다.

사실 먼저 제안이 온 건 서울대였다. 문제는 저널(학술지 논문)이었다. 전산 분야는 학술대회 논문이 더 권위가 있어 저널은 잘 안 쓰는데, 서울대는 이런 학과 특성 고려 없이 “2~3페이지라도 써서 접수만 채우라”고 했다. KAIST는 달랐다. 저널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장을 돕겠다”고 했다. 결국 서울대는 지원조차 못 했고, KAIST에 갔다. (※KAIST는 2003년 인사규정에 ‘여성교원 활용을 적극 장려한다’고 못 박고, 초빙 공고에 ‘여성 우대’를 넣었다. 문 교수가 2003년 가을 학기에 부임하면서 여성 우대 정책 첫 수혜자가 됐다.)

솔직히 겁이 났다. 내가 입학한 1984년 서울대 전자계산기학과(현 컴공과) 신입생 53명 중 여자가 6명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긴 했어도, 아예 한

명도 없는 환경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석사 때 조차 서울대 컴공과 여성 1호인 전화속 서울대 교수들이 연구실 선배로 있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고민을 털어놨더니 “KAIST처럼 개방적이고 여성 친화적인 곳에서 못 버티면 대한민국에선 버틸 데가 없다”고 했다. 다행히 한 학기 뒤에 여성 2호 교수(최성희)가 부임했다. 또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 전길남 명예교수와, 한국 사회 특유의 남성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학연·지연 문화를 깨려고 노력했던 MIT 출신 서남표 총장(88, 2006~13년 재직) 취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2010년 무렵 세계적으로 소위 ‘대박’을 친, 피인용이 많은 논문 두 개를 잇달아 내면서 ‘여성’이라는 꼬리표 없이 연구자로서 전성기를 맞은 데는 KAIST가 여성에 대한 편견 없이 교육계의 전위 부대 역할을 충실히 해 온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0여년 1세대 여성 교수로 지내면서 차별보다 혜택을 더 누렸다. 기회가 끊이지 않았다. 더 정확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위치였다. KAIST 교수라는 타이틀 덕도 있었지만, ‘여성 1호’이기에 더 주목받았다. 그리고 이런 주목은 더 큰 기회와 더 좋은 연구로 이어졌다.

여자라서 받은 차별

백범 김구 선생 따라 임시정부 활동하며 늘 거처를 옮겨 다닌 할아버지(독립운동가 문일민)를 대신해 1930년대 상하이에서 다섯 남매 건사하며 생계를 꾸린 할머니는 합리적인 분이였다. 할머님은 한 번도 “여자는 이래야 한다”는 식의 고려나 분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영향인지 60년대 미국에서 유학한 아버지(고 문국진 한양대 물리학과 교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 끼인 둘째라 상대적으로 찬밥 신세였지만, 여자라서 차별받진 않았다. 컴퓨터공학을 택한 것도 아버지 영향이었다. 스티브 잡스가 ‘타임’지 표지(1982)에 등장하는 등 주목받자 “신생 분야인 컴퓨터에 기회가 많다”며 권유했다.

이런 가정환경에서 자란 내게 서울공대는 생애 처음 여자의 한계를 경험한 낮은 세계였다. 당시 삶의 키워드가 ‘생존’일 정도였다. 그 시절 남고생은 무조건 기술 공업, 여고생은 가정 가사를 배웠다. 여학생이 살림살이를 배우는 동안 어떤 남학생은 컴퓨터 플로 차트까지 배우고 대학에 들어왔다. 공대생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에서 고교를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입학 전부터 남녀 격차를 벌리는 차별적 요소로 작용한 셈이다. 살아남으려고 학부 1학년 때 동네 컴퓨터 학원에 등록해 PC 베이직 프로그램을 한줄 한줄 짜봤다. 대학 커리큘럼 상 2학년부턴 PC 아닌 대형 컴퓨터, 베이직 말고 파스칼을 배웠지만 동기 남자들한테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마음이 급했다.

사실 수학을 잘했던 내겐 학업 능력보다 네트워크의 부재가 더 힘들었다. 1984년 입학 당시 그때까지 서울공대에 들어온 여자는 전부 합해도 100명이 채 안 됐다. 학연·지연으로 엮인 남자들의 일상 대화에 끼지 못해 힘들었다. 무리에 적응하려는 욕심에 공대 햄(아마추어 무선통신) 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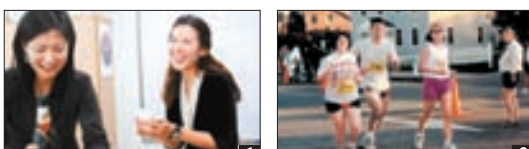


한국 첫 MPI 단장 차미영 키워 차별·특권 공존한 여성 1호의 삶 특권 안주 대신 사회 기여 고민 의대 광풍? 더 시급한 과제는...

지난달 30일 대전 KAIST에서 ‘여성 1호’ 삶을 살아온 문수복 교수를 만나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었다. 프랜시스 김성태



할아버지(오른쪽·독립운동가 문일민)가 백범 김구와 찍은 사진. [사진 문수복]



1. 지난 2007년 말, 박사 논문 심사를 마친 차미영 MPI 단장과 함께. 2. 미국 유학 시절 마라톤 등 달리기와 축구를 즐겨 했다. [사진 문수복]

리 활동을 했지만 이 정도로는 어렵지 않았다. 여찌 보면 밀려나지 않고 버틸 것만도 그 시절 여자로서 대단한 성취다. 나를 포함한 1세대 여성들이 그렇게 자리를 지킨 덕분에 지금 KAIST 공대 여교수 비율이 10%(조교수는 20%)까지 올라갔다. 특히 전산학부는 여성교수 비율(51명 중 8명)이 서울대 컴공과(35명 중 2명) 보다 훨씬 높다.

정년이 6년 앞으로 다가오니, ‘나 혼자 특권 누린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조바심이 든다. 나는 네트워크 측면에서 고충을 겪었지만 제자들은 그런 한계를 넘게 해주고 싶었다.

남녀 떠나 사람이 없다

지난해 차미영 박사가 막스플랑크연구소(MPI) 단장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자 토종 박사인 그의 발탁 배경을 다들 궁금해한다. 당연히 실력이 바탕이 됐지만, 네트워크의 힘도 빼놓을 수 없다. 차 교수가 박사 과정을 시작한 2004년 3월 홍콩에서 열린 큰 국제학회(IEEE INFOCOM)에 데려갔다. 내가 그랬듯, 교수였던 아버지의 안식년에 미국에 따라간 덕분에 영어가 편했던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수 문(문 교수 영어 이름의 1호 제자)라며 자신이 얼마나 호기심 많은 연구자인지 홍보했다.

이때 그를 눈여겨본 몇거스대 책임 교수이자 AT&T 연구원이 AT&T 연구소 인턴십을 제안했다. 당시 한국에선 전무하다시피 한 해외 주요 연구소 경험 기회를 스스로 만든 거다. 이게 차 교수를 일찌감치 다른 학생과 차별화했고, 어쩌면 인생까지 바꿨는지도 모른다.

차 교수가 박사를 마칠 즈음인 2007년 8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학회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소통능력이 빛을 발했다. 돈 많다고 소문난 MPI에 차 교수를 포닥(박사후과정)으로 보내고 싶었지만, 유럽 등 외국 연구소에선 경력이 뛰어나도 서류만 보고 뽑지 않는다. 교토 학회에 데려가 직접 만나게 했다. MPI 측은 연구 열정으로 가득 찬 차 교수를 마음에 들어 해 포닥으로 채용했고, 차 교수는 KAIST 교수 부임 이후에도 MPI와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런 오랜 신뢰 관계가 그를 한국인 첫 MPI 단장으로 이끌었다.

요즘 똑똑한 인재들이 공대나 기초학문을 외면하고 의대만 찾는 이른바 의대 쏠림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하지만 난 KAIST가 상위 0.1%로 채워지느냐, 혹은 1%로 채워지느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의대 아닌 자기만의 길을 선택하는 천재는 항상 있다. 대학은 영재만 기다릴 게 아니라 범재가 와도 성별 등 배경과 무관하게 기초를 갖추게 돕고, 이들이 천재와 어우러져 계속 호기심 갖고 연구하도록 충분한 동기 부여를 해줘야 한다. 결국 자발성이 관건이니까.

지금은 국가 차원의 공학 인재 유출(브레인 드레인)이 심각하다. 어떻게 이를 유지·유입(브레인 리텐션)으로 바꿀지 고민이 깊다. 아울러, 출산율 저하로 키워낼 인재 자체가 없어질까 두렵다. 공대에 입학했던 40년 전처럼 생존이 다시 내 화두가 된 이유다. 안혜리 논설위원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구글지도 광고로 경쟁사를 앞지르세요

가장 잘 보이는 TOP3 업체 위에 사장님 사업체를 뜨게 해 드립니다!!

고객이 많이 찾는 구글 로컬 검색때..

새고객, 매출 증가가 잘 안되시나요?
내 사업 불경기 탈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플러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웹사이트 제작, 구글광고 & SEO, 고객 리뷰관리, 소셜미디어 광고, 문자 마케팅, 온라인 쇼핑몰, 이메일 마케팅,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기타

시 설

북·러의 위험한 밀착... 한반도 정세 악영향 경계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2000년 5월 처음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불과 두 달 뒤에 러시아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방북했다. 이번은 무려 24년 만의 두 번째 방북이다. 지난달 집권 5기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뉴 차르'에 등극한 푸틴의 방북이 북한을 자극·고무해 한반도 정세와 대한민국 안보에 끼칠 악영향이 무엇보다 우려된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 회담을 할 예정이다. 2019년 4월과 지난해 9월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재래식 무기가 부족해진 러시아에 북한이 손을 내밀면서 북·러가 급속히 유착하자 국제 사회의 큰 우려를 낳았다. 이번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러 사이에 또다시 모종의 비밀 거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외에도 미사일 등을 대량으로 챙겨려 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지지는 물론, 김정은이 제시한 '5대 국방과업'을 실현하는 데 절실한 러시아산 첨단 군사기술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러시아가 탄도미사일 재진입 기술과 핵잠수함 기술 등을 북한에 넘기는 식으로 '레드 라인'을 넘는다면 가장 강력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올 들어 북·러 당국자들은 '새로운 법률적 기초' 위에 양자관계를 재정립한다는 입장을 공언해 왔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북·러가 양국 관계를 어떤 수위로 격상할지, 1961년 체결된 북·소 동맹 조약의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을 되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쌍방 중 일방이 침략당할 경우 군사적으로 자동 개입하는 이 조항은 옛소련 붕괴 이후 1996년 당시 열린 대통령 시절에 폐기했다.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북·러는 '신조약'을 체결하면서 자동개입 조항 없이 '불가피할 경우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는 표현만 넣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러는 양국 관계를 기존 '선린우호 관계'에서 군사동맹 바로 아래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2~3단계 격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단순히 외교적 수사라면 몰라도, 만약 자동개입 조항을 부활시키면 한·러 관계는 큰 위기를 맞을 것임을 러시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줬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6·25전쟁을 승인해 한반도를 쪼갬으로 만들었지만 고르바초프는 탈냉전기에 한·소 수교로 화해·협력 시대를 열었다. 24년 만에 평양에서 하룻밤을 보낸 푸틴 대통령은 스탈린의 길이 아니라 고르바초프의 길에 한·러의 밝은 미래가 있음을 성찰하기 바란다.

24년 만의 푸틴 방북, 무기·기술 비밀거래 우려 스탈린의 길이 아닌 고르바초프의 길을 가길

판결 이후 수정해야만 했던 법원의 황당한 실수

역대 최대인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 분할로 주목받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항소심 판결 보름여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고법 가사2부가 작성한 판결문에 중대한 실수가 드러난 탓이다. 그것도 최 회장 재산 형성과 관련한 대목에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2조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SK(주) 대한텔레콤과 SK C&C를 거쳐 성장한 과정을 설명했다. 1994년 11월 주당 8원이었던 대한텔레콤 주식이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으로 뛰었다고 적었다. 12.5배 성장이다. 이후 최 회장이 경영을 이끌면서 2009년 11월 SK C&C가 상장할 당시 주당 3만5650원으로 356배가 됐다고 했다. 선대 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훨씬 크다는 논리다.

그러나 최 회장은 그제 판결문에 나온 1998년 주당 100원은 1000원의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최 선대회장은 주식 가치를 125배로 키웠고, 최 회장은 35.6배를 만들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판부는 결국 판결문을 경정(수정)해야 했다. 이목이 쏠린 재판을 담당한 법관들이 가장 치열한 중요 쟁점에 대해 실수를 인정한 셈이다. 최 회장 측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선대회장 때 125배가 됐다는 최 회장의 주장은 판결문에도 적혀 있다"고 지적한다. 앞부분에 125배로 적힌 사안이 판결문 뒷부분에선 10분의 1로 축소된 풀

이였다.

파문이 커지자 재판부는 어찌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 이를 '중간 단계의 계산 오류'라면서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 4월 주가(16만원)를 기준 삼아 최 회장 재입 중 160배의 가치상승이 이뤄졌다는 추가 설명까지 내놨다. 중대한 부분의 오류를 단순 실수로 넘기는 태도도 그렇지만, 판결을 내린 이후에야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는 재판부의 대응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에서 크게 달라졌다. 파문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는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살펴야 했다. 판결문의 앞뒤가 다른 사안을 어떻게 판사 세 명이 모두 놓칠 수 있나.

쓸쓸함으로 점철된 이 이혼소송의 쟁점은 모두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特有財産)을 늘리기 위해 최 회장은 선대회장 성과의 대물림을 부각했다. 노 관장은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SK에 건넸다며 감춰온 메모를 공개했다. 가뜩이나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송에 우수 법관이 모였다는 서울고법이 혼란을 더했다. 법원의 치명적 실수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사법부의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이재명, 더 평등하다



23년 전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 등 민주당 내 개혁그룹이 요구한 건 다섯 가지였다. 비선 라인의 국정·당무 개입 금지, 당내 민주주의 확대 등이었다. DJ(김대중)는 당 총재직에서 물러났다. 이게 민주당에서 당·대권 분리의 시작이었다고 이상호 전 의원은 기억했다. 그는 "3김 시대의 사당(私黨)화를 극복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정착하자는 것"([민주당 1999~2024])이라고 설명했다.

DJ의 기록은 좀 달랐다. 지도부의 수습책이 공허했다고 여겼고, 당 총재직 사퇴는 자신의 결단이라고 했다. DJ는 "총재를 맡고 있는 한 당권과 대권 싸움에 나를 끌어들이게 분명했다"고 썼다.

어찌 됐든 그렇게 시작된 민주당의 당·대권 분리 제도가 그제 사실상 폐지됐다. 더불어 각급 당직자의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직무 자동정지 조항도 없어졌다. 2022년 대선 직후 예외 조항(정치 탄압 등)을 두었는데 그마저도 거주장소 러웠던 모양이다.

한국 정치의 퇴행이다. 사실 퇴행 자체는 놀랍지 않다. 하도 빈번해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주변에 거대한 '힘의 장'이 있는 듯, 한국 민주주의 진전을 가늠케 했던 것들이 일그러지는 속도와 정도, 방향에 진정 놀라게 된다.

당·대권 분리나, 기소 시 직무 자동정지는 그나마 당 사정이다. 인천의 5선의 원이, 더욱이 인천시장까지 지낸 인물이 뜬금없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고 그 덕분에 이 대표가 의원 배지를 단 건 기괴했으나, 복잡다단한 인간사의 부조리극으로 넘길 만했다. '일하는 국회'란 명분으로 1987년 체제 아래 여당 뒤흔었던 국회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건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한 가드레일을 없애는 것이라 씁쓸했으나 극단적 진영 전쟁의 파생이려니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행정부, 더 나아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제도를 찍어내는 도구로 입법부를 쓰려는 데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형 선고 후 극심해졌는데, 이 대표의 방어에 조급이라도 차질이 생길 법한 건 모조리 막

겠다는 기세다.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수사 착수부터 재판, 심지어 언론까지 손댄다.

수사 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 하면서 무고죄로 처벌한다고 으름만 아니라, 수감된 피의자를 수사할 땐 검사실로 부를 게 아니라 검사가 교정시설로 가라고 못박으려고까지 한다. 법외공죄로 판검사를 옥죄고 판검사 탄핵소추안을 흔들어 보이며 판사선출제로 판사들을 속아낼 기세다.

더 나아가 특정인에 대한 표적 수사를 금지하자는데, '특정인'에 대한 수사를 무조건 표적 수사로 여기는 이들인지라 '특정인'을 수사하지 말라는 입법이나 다름없다. 50인의 발의자 중에 이견태·양부남·김동아 의원 등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도 있다. 현행법으로 변호가 어렵다는 실토인지 어디동철할 뿐이다.

당·대권 분리 폐지, 판검사 제재 등이 대표 위한 당·국회 내 행태들 특수계급 금한 헌법에도 반한다

그나마 이견 대부분 발의 단계다. 과방위에선 민주당이 아예 방송3법 등을 일방 처리했다. 법안소위로 넘기는 시늬조차 안 했다. 사실상 방송 지배구조에 자기 쪽 사람들을 넣겠다는 건데, 자신들이 여당일 땐 거들떠보지도 않던 법안이다. 공교롭게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란 이 대표의 거친 발언에 언론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발한 바로 다음 날 강행했다. 여론전에서도 밀릴 수 없다는 심정인 듯한데, 웅졸하고도 웅색하다.

오랜 세월 민주당 그 자체였던 DJ는 이렇지 않았다. '김대중 당원'이 전체 당원의 80%였다는 시절이었는데도 그렇다. 이 대표는 비교적 단기간에 DJ 이상 이 됐다. 일종의 '신성(神性) 가족' 수준에 도달했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도 창설되지 않는다"는 헌법마저도 넘어서선 존재 말이다. 이 대표와 그 주변을 위한 제도가 속속 만들어지려 하고 있다.

분명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평등하다. 이 대표는 더 평등하다.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중앙일보

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1제1차 1회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종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aquaviwater.com

AQUAVI
아쿠아비 정수기·공기청정기

\$1만 내시고 아쿠아비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건강한 물을 월 \$22에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1 첫 달

불만족시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철회해 드립니다.

NO 디파짓·설치비·무상 필터교환·AS

*친구에게 추천해 주시면 비타민 샤워필터 3개(\$60 상당)를 드립니다 *

언더싱크형 정수기

미네랄수 \$22 월 (Tax 포함)

알칼리수 \$27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대리석 타공시 \$50 별도

냉·온 정수기

Refurbished

미네랄수 \$25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0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New

미네랄수 \$28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3 월 (Tax 포함)

등록비 \$50 별도
*3년 의무 사용



알칼리수

아쿠아비의 약알칼리 환원수 필터는 미네랄과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을 생성하여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물맛이 좋습니다.

무료 설치
누구나 손쉬운 필터 교체
SAVE MONEY



미네랄수 \$199

미네랄수 \$179

미네랄수 \$199

미네랄수 \$279

알칼리수 \$249

알칼리수 \$219

알칼리수 \$239

알칼리수 \$319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에서 판매중 amazon Walmart

간편 설치

비타민 샤워필터



피부 미용을 위해
비타민으로
샤워하세요!
아토피, 녹물,
염소 제거에도
좋아요.

\$20

6,000여 가정, 사무실, 식당, 교회, 병원,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 등에서 사용중

(Northside Hospital,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아틀란타 천주교회, 몽고메리 현대 중공업, 제주 사우나, 뉴저지 한인회, 뉴욕·뉴저지 전지역 파리바게트,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 중앙일보 외)

AQUAVI
아쿠아비 정수기·공기청정기

워싱턴 디씨 (VA/MD)

571.677.2555

www.aquaviwater.com

뉴욕
뉴저지

201-258-3404 / 917-410-2030
776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조지아
알라바마

404-496-6777
3741 Venture Dr., #310, Duluth, GA 30096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June 19,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중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주지역으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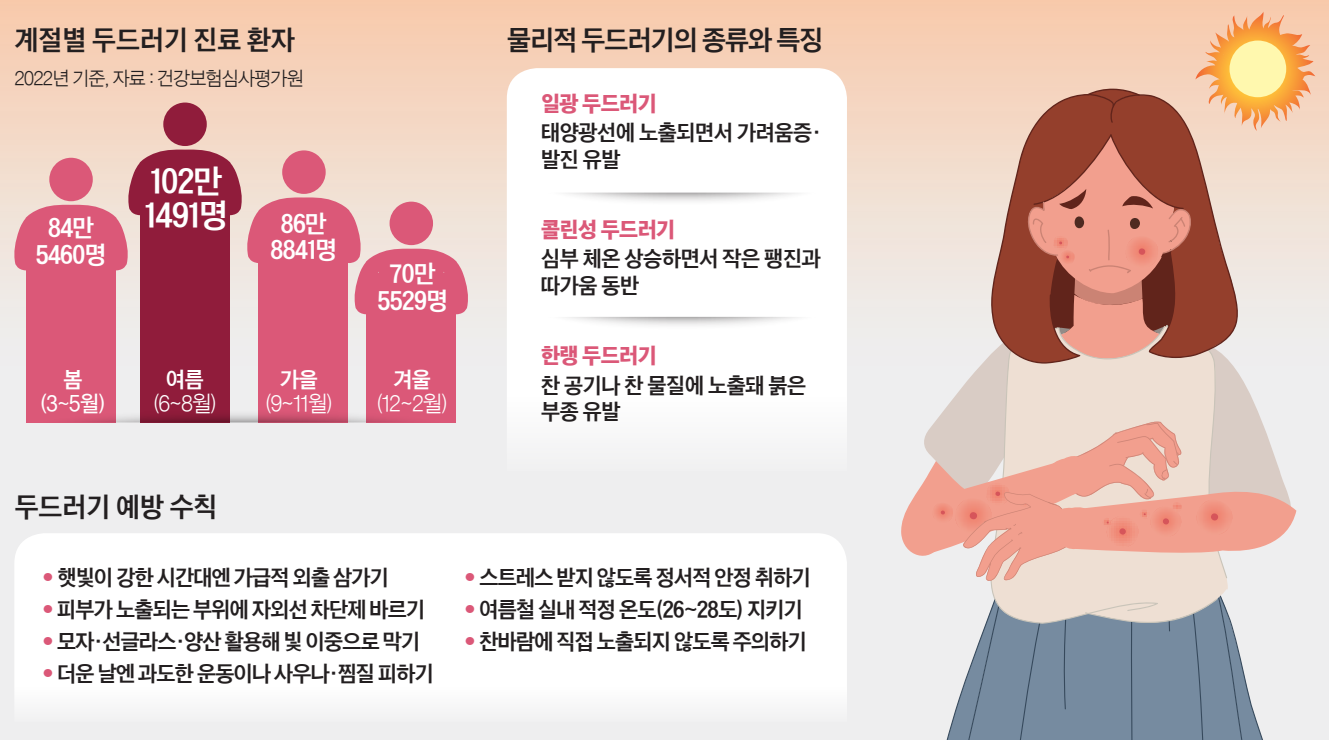
여름철에 더 심한 두드러기, 햇빛·발열·냉기 차단부터

30대 직장인 여성 신모 씨는 여름이 두렵다.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긴팔을 고수할 수밖에 없어서다. 일광 두드러기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햇빛에 몇 분만 노출해도 피부가 붉어지면 서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일광 두드러기가 생긴 줄 모르고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다 두드러기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했다. 신씨에게 여름은 가장 괴로운 계절이다.

두드러기는 여름철에 더 기승을 부린다. 강한 햇빛과 땀 배출, 에어컨 사용 등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늘어나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0만 명 이상이 두드러기로 진료를 받는다. 환자 수는 여름(6~8월)에 정점을 찍고 9월부터 점차 감소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김혜성 교수는 “날씨가 더운 여름철엔 물리적인 요인에 의한 두드러기가 자주 발생하고 피부 가려움증도 더 심하게 느낀다”며 “두드러기를 피하기 위해선 물리적인 자극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인 5명 중 1명 경험, 6주 지속 땀만성 두드러기는 비교적 흔한 피부 질환이다. 성인 5명 중 1명은 한 번쯤 두드러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건 히스타민(알레르기 유발 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 작용 때문이다.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 피부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혈액의 혈장(대부분 물) 성분이 빠져나와 증상을 유발한다. 피부 표면이 붉어지거나 부풀어 오르고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게 특징이다. 김 교수는 “두드러기 증상은 대부분 수일 내 저절로 호전된다”며 “6주 이상 두드러기가 지속할 경우만 성 두드러기로 진단한다”고 말했다.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두드러기



햇빛 몇 분만 노출해도 심한 가려움 과도한 운동 등 체온 급상승도 원인 냉방기기 노출 후 마듯해지며 발생도 외출 땀 자외선차단제 꼼꼼히 발라야

는 따로 있다. 햇빛과 발열, 차가운 온도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물리적 두드러기가 이에 해당한다. 햇빛이 강해졌을 때 발생하는 건 일광 두드러기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자외선·적외선·가시광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일광 두드러기가 잘 생긴다. 얼굴이나 목, 손등, 팔다리, 가슴 앞 등 평소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부위가 가려우면서 발진과 부종이 나타나는 식이다. 이러한 증상은 통상 수초에서 수분 뒤 발생하고 수 시간 내에 회복한다. 햇빛에 노출된 후 5분 이내에 두드러기가 생기면 일광 두드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몸속 체온(심부 체온)이 갑자기 상승할 때도 두드러기가 나타난다. 여름철 단골 질환인 콜린성 두드러기다. 기온이 높아진 탓에 이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꽤 있다. 심부 체온이 올라가면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 혈관을 확장해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운동이나 사우나를 할 때,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를 주의해야 한다.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의 경우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발진이 관찰된다. 고려대 안산병원 피부과 신경정신과 교수는 “콜린성 두드러기는 일반적인 두드러기보다 크기가 작고 좁쌀 크기의 병변이 여러 개 생겨난다”며 “가려움증보다는 따끔거리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고 현기증을 동반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랭 두드러기도 요주의 대상이다. 흔히 한랭 두드러기는 추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 여름철에도 간과해선 안 되는 질환이다. 차가운 음식을 먹거나 찬물, 실내 냉방기기 등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신영경 기자

▶ 2면 '두드러기'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립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험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시간이 빛은 전통 약재...에센스로 농축해 항산화, 항알레르기 효과 높여

침향의 효과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식물이 건강을 유지하는 한 축이었다. 열매부터 줄기, 이파리, 뿌리까지 전통 약재의 원료로 활용했다. 그리고 그 전통 약재들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며 다양한 처방에 사용된다. 그런데 일반 약재와는 달리 식물의 독특한 부분을 약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침향(沈香)이다.

침향은 침향나무의 나뭇진이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굳어진 것을 말한다. 세월이 만들어낸 약재인 셈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기록을 보면 기력 보충, 심신 안정을 포함해 가슴·배통증, 관절 증상, 마비, 가려움증 치료에 널리 쓰였다.

그런데 침향은 전통 약재인데도 불구하고 효능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 현대에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효과가 밝혀지고 있다. 특히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핵심 성분을 농축해 더욱 완성도 높은 에센스 형태로도 활용되고 있다.

β-셀리넨, β-유데스몰 등 핵심 성분

침향과 관련해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면 놀라울 정도다. 현대인의 건강에 필수인 항산화, 항알레르기, 항염, 뇌 손상 예방 등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우선 항산화 효과와 관련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침향 1.2kg을 잘게 부순 뒤 80% 메탄올(8L)로 3일간 3회 반복 추출해 얻어진 용액을 여과한 후 감압 농축해 추출물(185.3g)을 얻고 이를 물에 현탁해 카테킨을 대조군으로 삼아 항산화 활성도를 평가했다. 카테킨은 '천연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녹차의 항산화 성분이다. 연구팀은 "침향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평가한 결과, 항산화 활성 효능은 시료 처리 농도에 비례했다"며 "(침향이) 더욱 우수한 효능의 화합물 존재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침향의 항알레르기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알레르기 반응 유도를 위해 Anti-DNP-IgE를 함유한 생리식염수 용액을 수컷 흰쥐에게 피하 주사하고 48시간 경과 후 피부 부위를 절취해 아나필락시스 반응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침향 추출물이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침향의 추출물 용량이 증가할수록 알레르



기 증상의 원인인 히스타민 유리가 억제되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0.8mg/mL의 농도에서 94.1%의 높은 억제율을 보였다. 연구팀은 "침향 추출물이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를 억제하고 흰쥐의 비만세포로부터 히스타민 유리를 용량 의존적으로 억제한다"고 평가했다.

항염 효과도 데이터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50% 에탄올로 2시간 동안 추출해 얻은 침향 추출물을 생리식염수에 현탁한 뒤 신경성 부종을 유발한 쥐에게 경구 투여했다. 그 결과, 신경성 부종이 침향 추출물에 용량 의존적으로 억제됐다. 연구팀은 "침향 추출물이 부종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며 "유의미한 항염증 활성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혈관 투과성 및 백혈구 이동을 억제했는데, 이는 염증 매개체의 방출 감소 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항염증 목적) 활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침향이 이런 다양한 효과를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몇 가지 핵심 성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성분은 'β-셀리넨(β-Selinene)'이다. β-셀리넨은 만성 신부전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다. 침향의 기력 회복 효과가 β-셀리넨 때문이다.

둘째 성분은 '아가로스피롤(Agarospirol)'이다. 아가로스피롤은 신경을 이완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천연 신경안정제'로 불린다. 『본초강목』에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켜 준다"고 언급된 것이 아가로스피롤의 효과다. 아가로스피롤은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시켜줘 불면증 극복에도 도움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셋째는 'β-유데스몰(β-eudesmol)'이다. '자연의 선물'로 불리는 테르펜 물질의 일종이자 항염증·항균·항바이러스 물질로 알려져 있다. β-유데스몰은 제형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주목받는 성분이다. 침향은 분말·정제·캡슐보다 농축된 액상 형태로 섭취할 때 흡수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침향수지의 정유(精油) 성분을 농축해 추출한 것이 '침향 오일' '침향 원액' 등으로 불리는 '침향

에센스'인데, 이때의 주성분이 β-유데스몰이다. 하지만 침향 에센스는 추출 방식이 까다로워 생산 자체가 쉽지 않고 100kg 침향 원물에서 1kg만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수율도 매우 낮다. 침향의 흡수율과 효능을 끌어올린 침향 중의 침향이 바로 침향 에센스다.

선택 시 핵심 성분 함유량 체크해야

다만 침향 제품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침향을 원료로 한 제품이라고 같은 품질을 보장할 수 없어서다. 국내 침향의 품질 규격은 중급 속 함량 등 최소한의 안전 기준에 그친다. 따라서 침향 원료에 대한 자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고 품질관리 프로세스와 추출 기술을 갖춘 곳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도움된다.

또한 침향 에센스(오일)의 경우 추출 방식에 따라 효능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침향 에센스나 침향 에센스 함유 제품을 선택할 때 'β-유데스몰' 등 침향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류장훈 기자

▶1면 '두드러기'에서 이어집니다

한랭 두드러기는 피부가 찬 공기나 물질에 노출된 후 다시 따뜻해지는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인 두드러기 증상처럼 특정 부위의 피부가 간지러우면서 붉은 부종이 생긴다. 신 교수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차가운 음료를 마시거나 찬물에서 수영을 즐길 때도 한랭 두드러기가 올라올 수 있다"며 "심할 경우 호흡기 점막이 부어오르면서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다. 두드러기가 났는데 숨이 차는 증상을 보인다면 기도가 붓는다는 신호임을 알아채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물리적 두드러기는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치료해도 자주 재발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물리적 두드러기는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일상에서 여름철 두드러기 유발 요인을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일광 두드러기는 햇빛을, 콜린성 두드러기는 열을, 한랭 두드러기는 냉기를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일상생활

에서 이러한 물리적 자극을 피하긴 쉽지 않다. 김 교수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두드러기 재발이 반복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물리적 자극을 최소화해 평소 옷차림이나 실내·외 온도 변화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이롭다"고 강조했다.

샤워물 뜨겁지 않게, 에어컨보단 선풍기 일광 두드러기가 있다면 햇빛이 강한 시간대(오전 10시~오후 3시)엔 되도록 외출을 삼간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필수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자외선 차

단제를 노출 부위에 꼼꼼히 발라 두드러기 예방에 힘써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더라도 외출할 땀 모자·선글라스·양산 등을 이용해 빛을 이중으로 차단해 주는 것이 좋다. 옷은 짙은 색의 얇은 긴소매를 입어 햇빛을 최대한 가린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일정한 체온 유지가 핵심이다. 기온이 높은 날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하지 않는다. 사우나와 찜질은 물론 매일 샤워를 할 때도 물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게 신경 쓴다. 정서적인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는 것도 심부 체온을

끌어올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두드러기를 유발하지 않도록 불안을 다스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한랭 두드러기의 경우 여름철엔 실내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 덥다고 에어컨 바람을 과도하게 쐬면 안 된다. 실내 온도가 극단적으로 낮아지지 않게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26~28℃)를 유지한다. 에어컨보단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에어컨을 이용해야 한다면 찬 바람에 피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신영경 기자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s)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Main Office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치료해도 재발하는 탈장, 평소에 걷기·요가로 복근 강화해야

건강 위협하는 신체 탈출 질환 신체 기관은 저마다 각각 정해진 위치가 있다. 제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신체 조직과 장기가 제자리를 이탈해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탈장과 추간판탈출증, 골반장기탈출증이 대표적이다. 탈출 상태가 지속할 경우 결국 심한 통증을 유발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다행히도 피할 길은 있다. 당장 생활 습관만 개선해도 증상이 악화하거나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대표적인 신체 탈출 질환의 특징과 대처법을 알아본다.

신영경 기자



사타구니 툭 튀어나오고 사라지는 탈장



탈장(脫腸)은 말 그대로 내부 장기가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다. 다른 조직을 통해 돌출되거나 밀려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복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복압을 견디지 못해 발생한다. 격렬한 활동을 자주 할수록 탈장 위험이 커지는 이유다. 무엇보다 배에 과도하게 힘을 주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운동량이 지나치면 복압이 급격히 상승한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복벽에 균열이 생겨 장 일부가 쉽게 이탈할 수 있다.

탈장은 복벽이 약해진 곳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사타구니에 생기는 서혜부 탈장이 가장 흔하다. 이 경우 일상에서 기침을 하거나 변을 볼 때 서혜부 일부가 부풀어 오른다. 돌출 부위는 잠시간 서 있으면 더 볼록해지고 누우면 사라진다. 그래서 무심코 방치하기 쉽다. 초기엔 통증도 거의 없어 탈장을 알아채기 어렵다. 하지만 탈장 상태가 악화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심한 통증과 출혈을 동반할뿐더러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 폐색·괴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 복부·사타구니 부위가 툭 튀어나왔다면 탈장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탈장은 구조적인 문제다. 복벽 모양이 변한 것이므로 탈장을 교정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탈장 교정술은 인공막(그물막)을 이용해 복벽의 결손을 막아 이탈한 장기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과거에는 해당 부위 피부를 절개하는 개복술이 이뤄졌지만, 최근엔 복강경·로봇을 활용한 최소침습 수술로 탈장 교정술을 시행한다. 탈장은 수술해도 자주 재발한다.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해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탈장을 피하려면 복근을 조금씩 강화해야 한다. 걷기나 요가 등 중간 강도의 운동이 가장 적당하다. 운동 전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한다.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할 땐 올바른 자세로 호흡하면서 복부 내부 압력을 최대한 줄인다. 물건을 들 때는 팔다리 근육을 최대한 이용해 복부의 긴장을 줄인다. 변비를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현미·양배추 등 섬유질이 많은 통곡류와 채소·과일을 충분히 챙겨 먹는다.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은 요통, 다리가 저린 방사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다. 환자들은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특히 대소변 장애와 마비 증상까지 생겼다면 척수신경이 눌렸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빨리 병원을 찾아 척추 MRI를 통한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이롭다.

치료법은 환자의 통증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디스크 손상과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약물치료와 가벼운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한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4~6주가 지나면 증상이 개선된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10% 정도다. 보존적 치료로도 효과가 없을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추간판 탈출을 막으려면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구부정하게 앉거나 바닥에 양반다리로 오래 앉아 있는 자세는 허리에 부담을 준다. 의자에 앉을 땐 등을 구부리지 않고 양쪽 어깨를 펴고, 허리를 숙여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도 좋지 않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야 할 땐 무릎을 구부려서 다리 힘을 사용하면 도움된다. 누워 있을 땐 무릎 밑에 쿠션을 받치면 허리를 편하게 할 수 있다. 베개는 높지 않은 것으로 선택해 경추 추간판의 압력을 최소화한다.



사타구니 부위 튀어나왔다면 의심

목 디스크 예방엔 바른 자세 중요

누울 때 무릎 밑 쿠션 받치면 편해



밑 빠지는 느낌 호소하는 골반장기탈출증



골반장기탈출증은 '밑이 빠지는 병'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자궁·방광·직장 등 골반 속 장기가 질 밖으로 탈출하는 질환이다. 골반을 지지하는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발생한다. 유발 요인은 다양하다. 특히 출산과 노화는 골반 구조물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출산 과정이 힘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탄성을 잃어 장기가 이탈하기 쉽다. 결국 여성이라면 누구나 골반장기탈출증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골반 장기가 아래로 처지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요실금, 자궁탈출증, 방광류, 직장류, 변실금, 골반통, 성교통 장애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다.

골반장기탈출증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질환이다. 골반 내 장기의 구조를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증상이 경미하면 케겔 운동을 시도할 수 있지만, 더 진행하면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다. 빠져나온 장기를 안쪽 힘줄·인대에 고정하거나 인공 힘줄을 넣고 당겨 올리는 방식의 수술을 시행한다. 골반장기탈출증을 예방하려면 아랫배에 힘을 많이 주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들고 나르거나 배드민턴, 탁구, 윗몸일으키기 등을 특히 유의한다. 이런 행동은 아랫배를 자주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 운동은 걷기나 수영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도움말=최윤영 순천향대부천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김경준 부산힘찬병원 척추센터 원장, 유은희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디스크 빠져나와 신경 압박하는 척추 질환



추간판탈출증은 세월이 만들어낸 고질병이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디스크)이 손상되거나 과열돼 내부 물질이 탈출한 상태다. 추간판은 스프링처럼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중심부엔 젤리 같은 수핵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수핵 속 수분 함량이 줄어 추간판의 탄성이 떨어진다.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젊은 층에선 외상과 사고 등으로 갑자기 디스크가 과열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과체중이나 비만, 잘못된 자세도 디스크 탈출을 부른다. 이처럼 척추에 외부 자극이 가해지면 물렁뼈인 추간판은 밖으로 밀려나 제 위치를 벗어난다. 결국 탈출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경추 추간판탈출증(목 디스크)은 주로 목·어깨·팔·손가락 통증이 나타난다. 손가락까지 전기가 오는 듯 찌릿한 자극이 느껴진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한다. 이 경우 손저림과 함께 어깨 통증, 뒷목의 뻣뻣함이 동반되기도 한다.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새 관절염 치료법 개발 가속

병원 탐방 연세사랑병원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유전자 등을 이용해 손상된 인체 세포나 조직, 장기를 정상 기능으로 회복하는 의료기술이다. 희귀·난치병을 비롯해 기존 기술로 치료가 어려웠던 각종 질환을 극복하도록 도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도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 임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병원인 연세사랑병원도 최근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관절염 치료를 선도하고 있는 곳이다.

자체 연구소 설립해 기술 축적

연세사랑병원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데는 2008년부터 자체 세포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곳은 골수나 제대혈이 아닌 둔부·복부 지방에서 추출한 자가 지방 줄기세포를 관절염에 접목해 관심 받기도 했다. 자가 지방 줄기세포의 장



치료에 필요한 줄기세포 등을 수집할 때 이용하는 원심분리기. [사진 연세사랑병원]



연세사랑병원 의료진과 연구원들은 줄기세포 치료 과정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무균 상태로 관리되는 클린룸에서 세포 연구를 진행한다.

인성욱 객원기자

점에 주목한 결과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은 “지방을 이용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줄기세포를 비교적 쉽게 채취 가능하다”며 “앞서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법을 이용할 때보다 1만 배 많은 중간엽 줄기세포를 한번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사랑병원은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우수한 시설과 체계적인 시스템도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 과정에

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의 안전과 건강. 연세사랑병원은 ▶조직 채취 ▶세포 분리·농축 ▶시술 등의 순으로 이뤄지는 치료 과정에서 세포가 오염돼 환자 몸에 주입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한다. 줄기세포 시술을 하는 공간에 대학병원급 공조 시스템을 설치해 외부 바이러스의 실내 침투를 막고 별도의 세포 보관실을 마련해 감염 위험 없이 신속하게 치료를 진행한다. 연구실에도 무균 작업대(클린 벤치) 등을 뒤

전문성 높이는 연구 활동도 활발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수행할 의료진의 전문성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치료의 안전성, 정확성을 높이려면 재생의료를 적용할 분야의 임상 경험도 풍부해야 한다. 연세사랑병원의 의료진은 10년 넘게 관절 치료 분야에 종사한 이들이 구성돼 있다. 고병원장은 “일반적인 병원과 달리 고의사가 무릎·발목·어깨 등 한 부위의 관절 치료만 집중해 맡고 있다”며 “부위별 질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임상 경험, 여기에 줄기세포 기술까지 더해져 독보적인 역량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줄기세포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전문성 증진을 위한 연구에도 매진한다. 지금까지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이 발표한 줄기세포 관절 치료 관련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연구 논문만 해도 20여 편에 달한다. 고병원장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통해 앞으로 줄기세포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화 시대 수술 없이도 본연의 무릎과 어깨, 허리, 발목 등을 오래 쓸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수기자

인터뷰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줄기세포 치료 불가능한 환자도 맞춤형 인공관절로 문제 해결”

연세사랑병원은 관절염 분야의 대표적인 첨단재생의료기관이다. 이곳에서 이뤄지는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은 퇴행성 관절염 초·중기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다. 연골이 모두 닳아 없어진 말기 환자라면 이를 대체하는 인공관절 삽입술이 불가피하다. 연세사랑병원은 줄기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관절염 치료 전 단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은 무릎관절염 치료를 위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인공관절 수술도 진화를 거듭해 왔다

고 들었다. “인공관절 수술은 1970년대에 등장해 꾸준히 진화해 왔다. 수술에 쓰이는 인공관절만 해도 1~3세대에 걸쳐 발전했는데 1세대는 단순 통증 감소에 집중한 제품이었고, 2세대는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했고 3세대는 슬개골 탈구 등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부분의 제품이 미국·유럽 등에서 수입돼 한국인에게 최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나. “원내 연구진, 의료기기 전문업체와 7년여간 연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환자 1만2000여 명의 무릎

자기공명영상(MRI) 데이터를 분석해 한국인에게 맞는 ‘PNK 인공관절’을 개발했다. PNK는 ‘Preservation of Normal knee Kinematics’의 약자로 ‘정상적인 무릎 운동’에 초점을 맞춘 인공관절을 뜻한다. 즉 수술 후 정상 무릎에 가깝게 가동성을 개선하도록 돕는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어떤 강점을 갖췄나.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무릎뼈 간격이 좁고 무릎뼈 뒤쪽의 곡률이 완만한 편이다. 이 점을 반영해 외국산보다 두께가 얇고 좌식 생활에 맞게 150도 굴곡이 가능하도록 했다. 덕분에 이물감과 움직임 때 느껴지는 불편함이 적다. 실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수

술 후 부드럽게 무릎을 구부리게 됐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통증이 적다는 후기가 잇따른다. 환자와 의료진의 만족도가 높아 현재는 신촌·강남·용인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에서도 PNK 인공관절을 쓴다.”

-인공관절 수술의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나.

“치료 과정에서 가상현실(VR)뿐 아니라 증강현실(AR) 기술도 활발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가 수술할 때 AR 고글을 착용하면 절삭 범위, 인공관절 삽입 위치 등이 눈앞에 표시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수술을 진행하는 식이다. 임상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의료진도 이 기술을 활용하면

수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우리 병원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내년쯤 상용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절 건강을 위해 평소 일상에서 신경 쓸 점이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에 치료해야 줄기세포를 활용해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만큼 관절 통증이 3주 이상 지속한다면 서둘러 병원을 찾길 바란다. 또 폐경기에는 여성호르몬이 감소해 연골이 손상되기 쉬우니 쪼그려 앉은 습관을 삼가고 실내 자전거 타기 등으로 근력을 키우는 게 좋다.”

하지수기자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메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플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의학 칼럼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50대 후반의 남성 환자가 배우자와 함께 수면 문제를 상담하러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의 문제는 매우 심한 수면 중 코골이가 있는데, 환자는 젊어서도 간혹 코를 골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한다. 특히 잠을 자는 중에 호흡을 멈추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환자의 배우자는 코고는 가운데 갑자기 호흡을 멈추는 남편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불안하였다. 환자 본인도 언제 부턴가 아침에 눈을 떠서도 매우 피곤하여 한 숨 제대로 잔 것 같지 않고 하루 종일 짜뿌둥하여 좋지 않다고 하였다.

먼저 환자의 주간 졸음지수를 측정해보았고, 이는 비정상적으로 매우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환자의 여러 상태를 고려해 보았을 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가장 흔한 형태의 수면 무호흡증으로, 잠을 잘 때 정상적으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 즉 기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목젖, 편도, 혀 등이 뒤로 처지며 발생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기도는 깨어 있을 때 보다 수면 중에 약간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부의 경우 수면중 공기가 좁아진 기도를 통과하며 코골이가 같은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현상이 발생하나, 기도가 심하게 좁아진 경우 호흡 중에 공기가 통과하는 것을 막아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게 된다.

기도가 심하게 좁아져서 완전히 기도의 벽이 서로 붙어버리면 숨을 쉴 수 없게 되고 이때 호흡이 자주 멈추는 가운데 코를 고는 중간에, 순간 잠자는 사람이 죽는 듯 조용해지게 된다.

의학적으로 수면 무호흡 장애는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이 시간당 5회 이상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의 원인으로는 정상보다 턱이 작은 경우, 혀나 편도선이 큰 경우, 목젖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경우처럼 기도를 부분적으로 막는 경우와, 과체중으로 과도한 목의 지방조직이 기도를 압

박하여 좁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만, 나이가 많은 경우, 남성, 당뇨, 폐경 여성, 코 질환이 있는 경우에 폐쇄성 무호흡증이 매우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많은 연구에 의하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정상인보다 2-4 배 정도 높아진다고 한다.

본 환자의 경우 수면검사를 통하여 하룻밤에 무호흡 횟수가 시간당 30회 이상이 관찰되는 고도의 수면무호흡증을 가지고 있음으로 진단되었고, 이 어이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상담으로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상담 문의: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건강 칼럼

우울증의 이해와 극복

일반 정신과를 찾는 가장 흔한 문제로 우울증이 있다. 우울증은 여러 요소가 관여하는 생기는 질환인데 병전에 잘 생활하시던 경우에는 안치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처음 문진을 통해 유발할 요소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이다. 불안, 염려의 근원은 사람마다 독특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몸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두뇌의 어떤 부분을 위축시키면서 기본적인 생리적 기능이 변한다. 그래서 불면이 생기고 식욕이 줄어 몸무게가 빠지고, 기력이 감퇴하고, 자율신경계의 실조 증상이 일어나며 우울감, 불안감이 증가한다.

자기의 기본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 불안, 염려가 증가하며 절망감도 들며 자살의 유혹도 커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가뭇의 바람이라면, 반면 평소엔 신경계를 보호하는 비 같은 역할은 신경 성장 호르몬의 역할이다.

신경계는 신경 성장 호르몬의 활동으로 늘 새롭게 건강함을 유지하는데, 정상적으로 깊은 수면이나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신경 성장 호르몬의 활동이 왕성하게 된다.

그래서 우울증의 발생과 치료를 스트레스 호르몬과 신경 성장호르몬 군 사이의 활동 균형, 또는 '저울의 비유'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 건강을 증진/유지하는 성장호르몬을 활성화하면,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작용을 최소화하는 생활방식을 살면 우울증의 예방 및 치료적인 삶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느 한쪽에 기울어 여러 요소가 중첩되면 무게 중심이 유발요소 쪽으로 기울면 증상이 발현된다.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사망, 중요한 관계의 단절, 암, 주요 수술 등을 진단, 치료하는 동안, 또는 경제적인 문제,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대인관계 갈등으로 불안,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많아지며, 이런 여건이 중첩되면서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홍수가 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몸의 적응에 도움을 준다고 보지만, 만성적으로 작용하면 신경계를 위축시키는 작용을 한다. 게다가 불면으로 정상적인 성장호르몬 활동이 위축되면 급격히 조화가 깨어지고 여러 우울증 증상이 발현된다.

치료의 방향은 부정적인 쪽의 무게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줄이는 쪽으로)는 줄여주고 긍정적인 쪽의 무게 (성장 호르몬의 활성화)를 실어 주는 쪽으로 나가면 된다.

성장 호르몬의 활성화는 잠을 잘 자는 것, 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잘 분비되지만, 제삼의 방법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이다. 항우울제는 세로토닌, 노어 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을 통해 작용하지만 결국은 BDNF 등의 신경 성장 호르몬 군(지금까지 수십 개의 이름이 알려져 있다)의 활성화로 치료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즉 항우울제들은 신경계 영양제나 비타민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한편 예방적인 차원에서, 스트레스 반응 줄이거나 다루기가 필요한데, 어떤 부정적인 일에 대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김자성 전문의 LA 김자성 정신과

한방 칼럼

허리통증의 원인, 척추후관절 증후군

허리디스크가 아님에도 계속되는 허리 통증은 '척추후관절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척추후관절은 척추를 연결하는 척추체 뒤쪽에 위치해 체중부하 일부를 지탱한다. 몸을 앞으로 숙이는 굴신운동과 좌우 회전을 할 때 유연하지만 과도하게 움직여지지 않도록 척추의 회전을 제한한다. 척추후관절 증후군은 척추후관절에 외상, 퇴행성 변화 혹은 과도한 부하가 가해져서 염증과 변형이 생기는 질환이다.

척추후관절 증후군의 증상은 1.허리통증과 뻣뻣하고 찌릿한 증상이 나타난다. 2.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게 굳고 심한 통증이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고 움직일수록 서서히 굳었던 근육이 풀린다. 3.허리를 굽힐 때 편안하지고, 뒤로 젖힐 때 허리 정중앙과 양옆으로 통증과 뻣뻣함이 가중된다. 4.허리를 돌리거나 비트는 동작이 어렵다. 특히 잡자리에서 몸을 옆으로 돌릴 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 5.허리 후관절 부분을 누르면 압통이 나타난다. 6.앉아 있을 때 통증이 경감되지만,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 통증이 생긴다. 7.엉덩이와 허벅지까지 쭈시는 경우도 있다.

척추후관절 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은 외상, 허리 염좌를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 오랜 기간 습관화된 나쁜 자세,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경우,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복부비만과 허리근육이 약한 여성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최근에는 사무직이나 장시간의 운전, 과식, 잦은 스포츠 부상으로 20~30대에도 발병한다.

허리 후관절 증후군과 허리 디스크 증상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관절 증후군의 통증이 엉덩이, 허벅지까지 방사통이 생겨 허리디스크로 착각할 수 있지만, 후관절 증후군의 방사통은 무릎 아래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둘째, 디스크는 휴식을 취하면 통증이 완화되



박언정 원장 LA 해성한방병원

지만, 후관절 증후군은 침대에 누워서 안정을 취하거나 부동자세를 취하면 허리 통증이 악화되고, 허리 강직까지 발생한다.

척추후관절 증후군의 한방치료는 과하게 긴장된 근육과 인대의 경결을 풀어주고 관절의 가동성을 회복시켜준다. 염증이 발생한 후관절 부위의 경락을 소통시켜 염증 완화하는 침치료와 온열치료가 효과적이다. 더불어 근육과 인대, 뼈를 강화하는 약물치료는 병의 급진전을 막고 재발을 방지한다.

척추후관절 증후군의 생활수칙 1.무리한 운동은 삼간다. 운동은 가벼운 체조와 스트레칭부터 시작하고, 가벼운 중량 운동으로 시작한다. 2.몸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한다. 3.오래 서 있지 않고, 같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지 않는다. 4.적당한 체중 유지로 척추후관절 부담을 줄여야 한다. 5.가급적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는다. 만약 물건을 든다면,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인 상태에서 몸과 물건을 밀착시켜 하체의 힘을 이용하여 들도록 한다.

척추후관절 증후군에 좋은 운동도 추천 한다.

1.브릿지 운동: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누워서 복부에 힘을 준 채 엉덩이, 허리, 가슴 순으로 천장으로 들어 올린다.

2.버드독 운동: 양손과 양 무릎으로 지지하면서 바닥에 엎드린다. 한쪽 팔을 앞으로 쭉 뻗어준 뒤, 뻗은 팔의 반대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준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헤민한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13.9%	42.9%	2.3%	0.0%
매우물음	양요	노화사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적,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피릿피릿
바닥 못누움

Sciatica 좌골신경통

영치

엄지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뻣음

발목 뻣

오래된 것 쉽게 해결됨

plantar aches

뒤꿈치

발바닥 통증

힘이 없어 집지 못함

방아쇠

피지 않음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30°

구부러짐 힘들다

뒤로 퍼기 힘들다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헤민한의원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NerveControlSNC.com

월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트로트 신동에서 꿈에 그리던 미국 공연까지...

가수 진옥(사진)은 경기도 평택에서 1993년 7월 21일 3형제중 막내로 태어났다. 이후 안양으로 이사하며 만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국악예술학교(현 국립전통예술중학교) 음악연극과를 졸업했다.



중학교시절 1학년때는 민요과로 입학했지만 주위에 서 트로트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연기연극을 전공해야 된다는 조언에 따라 음악연극과로 바꾸게 되었다. 고등학교 진학 또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 진 학을 하면서 더욱 전문화된 음악공부에 뛰어들었다. 뮤지컬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진서는 뮤지컬 전공으로 학업을 이어가며 그 재능 또한 빛을 발휘 하게 된다.

진옥은 어릴 적부터 음악에 남다른 관심과 재능이 있었다. 3살무렵 시장까지 엄마를 따라다니다 길은 잃은 적이 있는데, 4시간동안 애타게 찾아 헤메다 옥이를 발견한 곳은 음악이 흐르는 레코드점 앞이었다고. 애타게 찾아 헤매던 엄마와는 반대로 진옥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가게 오픈 행사장 같이 음악이 흐르는 곳이면 옥이는 항상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옥이는 어른을 보면 두손을 공수한 채 '안녕하세요'라며 만나는 사람마다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 선생님들은 그런 옥이를 보고 가정교육이 참 잘 되었다며 모두 입을 모아 말을 했다. 이렇게 옥이가 예의바른데에는 아빠의 교육이 있었다고 한다. 진옥을 끔찍이 사랑하지만 가정교육만 큼은 정말 엄한 아버지였다.

하루는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빠한테 좋아리에 피멍이 들도록 맞은 날이 있었다. 다른 날과 다르게 억울해 하기에 사유서를 쓰게 하자, "할머니의 집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2정거장까지 걸어가며 도와 드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린시절 진옥은 예의가 바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미는 아이였다.

노래를 좋아하는 아빠는 옥이를 태우고 운전 을 하며 수시로 남진의 노래를 틀었다. 함께 노래 방에 갔을 때 옥이는 고개 흔들고 다리 떠는 모습 까지도 가수 남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이런 진옥의 재능을 엄마 친구인 최월례(국악인)씨가 발견하며 5살 때 사할린 동포 위문공연 에 동행하여 진옥은 무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진옥의 재능은 유치원 때 KBS '그대로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김방욱씨에게 발탁되어 그 후 흡소핍, 에너지절약 광고모델을 비롯해 여러 방송사의 '혼자서도 잘해요', '뽀뽀뽀', '맑은노래 고운노래' 등 여러 어린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 연기 또한 남다른 재능이 있어 드라마 태조왕 건, 영화 맹부삼천지교, ymca야구단 등에서 아역 탤런트로 활동하였고 한국영화공사의 '바다 이야기'에서도 주인공이 되어 멋진 연기를 보여 주었다.

2002년 12월 1일 1집 앨범 꿈속의 여인 발매를 시작으로 2003년에는 동지, 꽃을 든 나자, 알미운 여자 등 여러곡을 수록한 '옥이의 트롯 일기장' 음반을 발매하며 당시 한국연예인협회에 최연소 가수로 등록이 되었다. 진옥의 타고난 끼는 '남인수 전통 트로트 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수준이었다. 어린시절 진옥은 아무리 피곤해도 무대 위에 서면 신 명이 나고 관객들이 열광하며 박수를 칠 때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진옥은 트롯신동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트로트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보여줬다.



이후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진학하여 음악연극과를 졸업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제1회 전국고교뮤지컬콩쿨콘테스트에 출전하여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고 '안승이' 뮤지컬 작품에 치열한 경쟁속에 당당히 오디션에 합격하여 국립극장에서 2주간 공연 무대에 오르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졸업후 서둘러 군대에 입대 학교 군대에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군악대에 차출되어 군에서도 새로운 음악공부를 이어 갈수 있었다.

그러나 군 제대후 아버지의 간암소식과 어머니의 심근경색으로 인해 잠시 꿈을 접어야 했다. 부모님의 병환으로 인해 진옥은 다니던 대학마저



2002년 싱글 앨범 '알미운 여자/꿈속의 여인' 표지 사진 2003년 정규 앨범 '옥이의 트롯 일기장' 표지 사진 2018년 정규 앨범 '진서' 표지 사진. [사진 출처=나무위키]

그만둔 후 식당, 당구장, 노래방, 공사현장까지 곳을 일을 마다하지 않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 하지만 가수에 대한 꿈을 쉽게 놓기 어려웠을까... '진서'라는 예명과 함께 다시 가수의 길로 들어섰다. 하지만 트롯신동으로 불리던 어린시절과는 다르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KBS2 TV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목요일 코너 '왕의 밥상'으로 열심히 시청자들을 찾아갔다. 아침마다, 장윤정의 도장깨기, 노래가 좋아 등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 계속해 얼굴을 비추었고 2022년 미스터트롯2에 셋번부터 참가하여 7까지 오르게 된다.

본선1차 팀미션에서는 태어나 처음으로 무대를 위해 태평소를 연주하였다. 본선1차를 준비하며 팀원들과 하루에 10시간씩 연습 후 매일 차에서 혼자 3시간씩 태평소 연습을 했다고 한다.작곡가미션에서 진옥은 블루스트롯 '이별편지'를 진옥만 보여줄 수 있는 섬세한 감정표현과 미성 목소리로 아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드디어 7집에 오르게 되었고 마지막 결승전 인생곡 미션에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서울 가 살자'를 미션곡으로 선택했다. '서울 가 살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진옥은 '아버지께서 어려셨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힘들게 살아오셨다. 아버지 고향이 창원 마산이다'라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아닌 서울로 돈을 벌러 나가야 하잖아요. 어려셨을 때 부터 돈벌이를 위해 고생하신걸 알고 있었어요'라며 인터뷰를 했다.

진옥은 끝내 눈물을 보이며, 무명생활 시절 아버지께서 신세한탄을 하신적이 있다며 입을 열었다. 어린 시절 트로트신동으로 활동하다 그 후 무명생활이 길었다며 그때 당시 어머니도 아프셨고 아버지도 암투병으로 많이 힘드셨다며 그래서 더 활동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을 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연으로 '서울 가 살자'를 선택했으며 결승 무대에서도 진옥은 아름다운 미성으로 섬세한 감정표현을 보여주었으며 무대 한쪽에 앉아있는 가족들을 보면 눈물이 날까 반대편을 보고 눈물을 참아가며 무대를 이어나갔다. 그 모습 또한 객석에 모인 많은 팬들의 눈물을 쏟게 했다.

이 결승전 무대에서 진옥은 최종 6위로 미스터트롯2 2탑7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후 서울로 시작해 안양까지 전국투어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아쉬워하는 많은 팬들을 위해 11월 7일,8일 양일간 서울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애플콘서트까지 성공적으로 전국투어를 마무리했다. 전국투어 뿐만 아니라 코스타세라나 호 '나의 인생 크루즈'에 7멤버들과 함께 참여하여 많은 팬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였고 11월 18일에는 미국 LA 페창가짜 밋에서 또 한번 미국에 있는 팬들 위한 공연이 열렸다.



현재는 11월 25일 서울을 시작으로 ~ 3월9일대전, 이후 3월 15일~17일 서울 애플콘서트까지 7 전국투어가 진행중 에 있다.

▶ 수상내역

- 2023년 미스터트롯2 2탑
- 2002년 제 12회 남인수가요제 최우수상 (청소년 부문)
- 2010년 제1회 KMC 전국 고교 뮤지컬콩쿨 콘테스트대상
- 2011년 KAC 한국 청소년뮤지컬 경연대회 금상
- 통일부 옹변대회 장관상
- 경기도교원단체 옹변대회 대상

▶ 방송활동

- 1997년~2000년 8월 KBS2 '혼자서도 잘해요'
- 2001년~2002년 3월 EBS1 '딩동댕 유치원'
- 2004년 12월 18일 SBS '학교전설'
- 2005년 9월 17일 KBS2 추석특집 '트로트 신동천하'
- 2017년 10월 5일 OBS '전국 가요스타쇼'
- 2018년 7월 25일 NBN '신인들의 수다'
- 2018년 8월 31~2019년 5월 17일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왕의밥상
- 2021년 3월 7일 이벤트TV '음악다방 영스타 시즌2'
- 2021년 10월 6일 KBS1 '아침마당'- 도전꿈의무대 1승
- 2022년 7월 24일 KBS1 '노래가 좋아' - 1승
- 2022년 12월 29일~2023년 3월 16일 TV조선 '미스터트롯2'
- 2023년 4월 6일, 4월 17일 TV조선 '미스터트롯2 토크콘서트'
- 2023년 5월 2일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 2023년 5월 3일~11월 29일 TV조선 '트랄랄라 브라더스'
- 2023년 5월 11일- TV조선 '미스터트롯'
- 2023년 5월 15일 SBS '더트롯쇼'
- 2023년 8월 12일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 팬들의 사연

#1 - "안녕하세요 저는 진옥을 응원하는 평범한 진옥이 또래의 팬 '모찌'라고 합니다. 트로트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가수라고는 아이도박에 없던 저에게 어느날 엄마께서 미스터트롯2에 진옥이라는 가수를 꼭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래실력은 물론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예쁘다면서요. 그때까지만해도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전국투어 청주 콘서트를 가게 되었고 그 날 이후 엄마와 함께 콘서트를 다니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진옥이보다는 다른 멤버에게 빠져 엄마와 함께 콘서트를 즐겼죠. 그러던 어느 날 진옥의 행사무대를 예쁘게 찍어달라는 엄마의 부탁으로 카메라를 들고 가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면 진옥을 응원하게 된 시점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날 이후로 저는 현생을 잠시 미루고 제 스케줄을 진옥의 스케줄에 맞추어 가며 진옥을 응원하러 다녔어요. 진옥이 가는 곳이면 대한민국 어디든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갔던 것 같아요. 트로트에 관심이 없던 제가 스타밍리스트는 모두 진옥의 노래로 꽂차있고 투표도 하며 응원하고 있어요. 얼마전에는 팬들의 투표로 1달동안 고속터미널역에 제가 직접 찍은 진옥의 예쁜 모습들로 만들어진 광고영상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믿기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기쁘던지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좋아했던 가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진옥이의 모든 모습이 예쁘고 좋아요. 저는앞으로도 계속 진옥이를 응원할 거예요." (모찌)

#2 - "미스터트롯2 경연을 보며 알게 된 진옥 가수님!경연 첫곡 회초리를 부르는 모습과 목소리에 반하고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 공사현장 식당알바등 힘든일을 마다하지 않은 착한 심성에 반해서 이 가수 무조건 잘됐을 좋겠다는 심정으로 팬카페에 가입하고 콘서트와 행사를 다니면서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감상과 노래로 큰감동과 큰행복을 주는 진옥 가수님 응원합니다! 영원히~~~" (정진)

#3 - "몸이 불편하신 엄마를 10년동안 모시던중 저는 최근근개 과열로 인한 수술을 앞두고 엄마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입원 4개월만에 92세의 연세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셨답니다. 끝까지 엄마를 모시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을즈음 트롯을 좋아하지도 않던 제가 우연히 미스터트롯2 데스매치때 진옥 님이 부른 무심세월을 듣고 왜그리 눈물이 나던지요... 그후로 난생 처음으로 팬카페에 가입하여 덕질을 시작했답니다. 평소 자동차에 남을 태우지 않았던 제가 카풀함을 만들어 진옥 님 행사,콘서트에 다니게 되었죠. 진옥님 노래를 들으면서 얼굴엔 웃음이 가득해졌고 하는 일에도 활력이 생겼답니다. 진옥님을 자기보다 더 예뻐하는것 같라며 유아들은 질투를 하면서도 밝아진 저를 보고 무심한척 응원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합칩니다." (이별편지)

#4 - "트로트를 그리 좋아하진 않았지만 우연히 경연 프로를 보다가 진옥님이 독학으로 태평소를 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 응원하고 있던 차에 그 어려운 블루스풍의 이별편지를 눈 감으며 친구 두를 신은 발로 살짝 살짝 리듬을 타며 몽환적으로 몰입해 부르는 모습에 심쿵, 완전 푹 빠졌어요.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진옥 가수님의 모든 것이 궁금하고 알고싶어 자료를 찾아 인터넷을 헤매 다니고 처음으로 팬카페란 곳도 가입하게 되었네요. 트롯 신동이였지만 집안의 어려움으로 20대에 못했던 노래를 30대엔 꿈을 펼치고 싶다는 젊은 순수청년의 희망과 빛나는 미래를 응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진옥님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알면 알수록 양과같은 매력의 무궁무진하고 모태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올 진옥님은 독보적인 섬세한 미성으로 한음 한음에 짙은 감성이 실려 부른 노래마다 가슴을 울립니다. 이제 꿈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진옥 가수님의 눈부신 찬란한 미래를 있기를 응원합니다." (진러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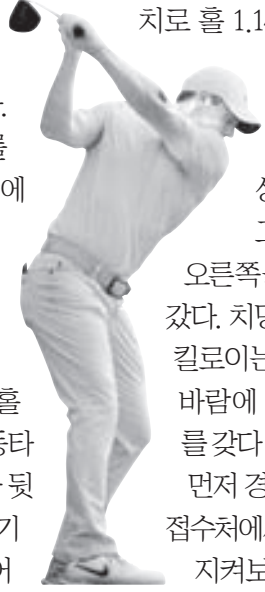
1m 앞 우승 날린 매킬로이 “당분간 골프와 거리두겠다”

“어제는 정말 힘든 날이었다. 프로골퍼로서 살아온 지난 17년 가운데 가장 힘들었다.”

17일 끝난 US오픈에서 약 1m 거리의 퍼트를 놓치는 바람에 우승 기회를 날려버린 로리 매킬로이(35·북아일랜드·사진)가 당분간 골프와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3주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하겠다며 US오픈에서 역전패한 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매킬로이는 18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앞으로 몇 주 동안 골프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 (휴식을 취한 뒤) 7월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타이틀을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킬로이는 1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 골프장에서 끝난 US오픈에서 우승 문턱까지 갔다. 브라이슨 디샬보(31·미국)에게 3타 뒤진 채 최종 4라운드를 출발했지만, 조금씩 격차를 줄였고 12번 홀(파4)에서 버디를 잡으면서 동타(7언더파)를 만들었다. 더구나 뒷조의 디샬보가 이 홀에서 보기를 범하면서 단독 선두로 뛰어



US오픈 1m 거리 퍼트 놓쳐 역전패 디샬보에 축하인사 않고 자리 떠 “17년 골프인생 중 가장 힘든 날”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출전 철회

올랐다. 그러나 매킬로이는 이후 후반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버디 1개와 보기 1개로 타수를 유지하다가 파4의 16번 홀에서 파 퍼트를 놓치는 바람에 디샬보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이어진 마지막 18번 홀(파4). 매킬로이는 그린을 놓쳤지만, 침착한 어프로치로 홀 1.14m 거리에 공을 붙였다.

짧은 거리의 파퍼트만 성공하면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가볍게 친 공이 홀 오른쪽을 스치더니 그대로 흘러갔다. 치명적인 퍼트 실수. 결국 매킬로이는 여기에서 1타를 까먹는 바람에 디샬보에게 우승 트로피를 갖다 바친 꼴이 됐다.

먼저 경기를 끝낸 뒤 스코어카드 접수처에서 TV로 디샬보의 경기를 지켜보던 매킬로이는 지난해에



로리 매킬로이는 ...

- 생년월일 : 1989년 5월 4일
- 신장·체중 : 1m78cm·73kg
- 프로 데뷔 : 2008년
- 통산 우승 : PGA 투어 26승
- 평균 비거리 : 318야드(전체 1위)
- 주요 우승 : US오픈(2011)
- 2012 PGA 챔피언십(2012)
디오픈(2014)

US오픈 최종라운드 마지막 18번 홀에서 1.14m 거리의 짧은 파퍼트를 놓친 직후 머리를 감싸 쥐며 안타까워하는 매킬로이. [AFP-연합뉴스]

이어 2년 연속 준우승이 확정되자 캐디와 함께 클럽하우스를 빠져나갔다. 매킬로이는 특히 디샬보가 마지막 18번 홀에서 자신과 비슷한 거리(1.19m)의 파퍼트를 성공시키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평소 같으면 준우승을 하더라도 챔피언에게 축하 인사를 했겠지만, 이날만큼은 충격이 큰 듯 아무런 말 없이 대회장을 빠져나갔다. 매킬로이는 2014년 PGA 챔피언십 제패 이후 10년 동안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

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18번 홀의 퍼트 실수는 뼈아팠다.

매킬로이는 다음 날인 18일 뒤늦게 “디샬보의 우승을 축하한다. 디샬보는 충분히 우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챔피언”이라며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를 후회하게 됐다. 특히 16번 홀과 18번 홀에서 퍼트 두 개를 놓친 점이 무척 아쉽다”고 했다. 그는 또 “그래도 메이저 대회 우승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느낀다. 나는 17년 동

안 지속해서 회복하는 능력을 키웠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음 대회를 위해 나 자신을 더욱 단단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매킬로이는 당장 20일 개막하는 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출전 신청을 철회했다. 당분간 휴식을 취한 뒤 다음 달 11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개막하는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에서 복귀할 예정이다. 매킬로이는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이다. **고봉준 기자**

에릭센, 심장마비 후 1100일 만의 복귀전서 ‘기적’을 쓰다

(덴마크 미드필더)

유로2024 조별리그서 선제골 날려 3년 전 심장 제세동기 삽입 수술 “불가능한 일 해내” 최우수선수에

“기적의 복귀전”

영국 BBC는 17일 덴마크의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에릭센(32·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첫 경기에서 맹활약을 펼친 것을 이렇게 소개했다.

에릭센은 이날 독일 슈투트가르트 아레나에서 열린 슬로베니아와의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렸다. 덴마크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그는 전반 17분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에릭센은 A매치 131번째 경기에 출전해 42골을 기록한 베테랑이지만, 이날 경기와 골은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



유로 2024 슬로베니아와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후 환호하는 에릭센. [AP-연합뉴스]

다. 그라운드에서 쓰러진 지 1100일 만에 다시 돌아온 유로 무대에서 건재를 알린 자축교였기 때문이다. 에릭센은 3년 전인 2021년 6월 벌어진 핀란드와의

유로 2020 조별리그 1차전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그라운드에서 쓰러져 전세계 팬들을 놀라게 했다.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다

행히 심장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받고 회복했다. 당시 그는 인테르 밀란(이탈리아) 소속이었는데, 심장 제세동기를 단 채로는 경기에 뛰 수 없다는 이탈리아 세리에A의 규정 탓에 소속 팀과 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유럽 정상급 미드필더였던 에릭센의 축구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병상에서 일어난 직후부터 개인 훈련을 하며 복귀를 준비했다.

그러던 중 2022년 1월 브렌트퍼드(잉글랜드)가 그에게 손을 내밀면서 다시 뛰 기회가 주어졌다.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전성기 못지않은 기량을 선보여 같은 해 7월 맨유에 입단했다. 그 사이 덴마크 국가대표로도 복귀해 2022 카타르월드컵에도 출전했다.

에릭센은 ‘손흥민 절친’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2015~16시즌부터 2019~20

시즌 전반기까지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었다. 에릭센이 쓰러지던 날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레바논전에 나섰던 손흥민은 페널티킥 골을 넣은 뒤 중계 카메라를 향해 영어로 “크리스티안, 사랑해”라고 외쳤다.

이날 유로 무대에 복귀해 골까지 넣은 에릭센은 활짝 웃으며 그라운드를 누볐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에릭센이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 그는 1100일 전 심장이 5분간 멎었던 선수였다”고 소개했다. 덴마크는 슬로베니아와 1-1로 비겼지만, 에릭센은 경기 최우수선수(MOM)에 선정됐다.

덴마크와 같은 조에 속한 ‘우승 후보’ 잉글랜드는 같은 날 세르비아를 1-0으로 물리치고 첫 승을 올렸다. 잉글랜드는 21일 덴마크와 2차전을 치른다. D조의 네덜란드는 폴란드에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피주영 기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변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학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Healthy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각별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윌슨스파크 북쪽 유턴 맨이펙트+mart에서 10분 거리

센텀힐 / 챔블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텀힐 북서/맨이펙트+mart와 챔블리 북에서 각각 5분거리

Hair **Z**one

20주년 기념 스페셜!!

20주년 특가 이벤트 !!

- Mens Hair Cut
Seniors (Up to 65)
Kids (Under 15)
Military

\$19,99

Jacky, Ellen 제외



Body Massage **\$49,99** (애난데일점)

60-Minute Body Massage

- Relaxation Full Body
- Swedish with Free Essential Oil
- Therapeutic Deep Tissue



Ellen

Business Hours

MON - SAT 10AM - 6PM
WED, SUN CLOSED

Burke

202-580-9398

8985 Hersand Dr
Burke, VA 22015



Jacky

Business Hours

MON - SAT 9AM - 7PM
SUN 10AM - 3PM

Annandale

703-750-1020

6920 M Bradlick Shopping Center
Annandale, VA 22003

뉴욕·한국·일본에서 30년 경력 스타일 리스트

Hair **Z**one

바버 or 미용사 / 바디 마사지사
풀 타임 / 파트 타임 구함

Hair Zone 예약 App Download



Apple



Android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꿈**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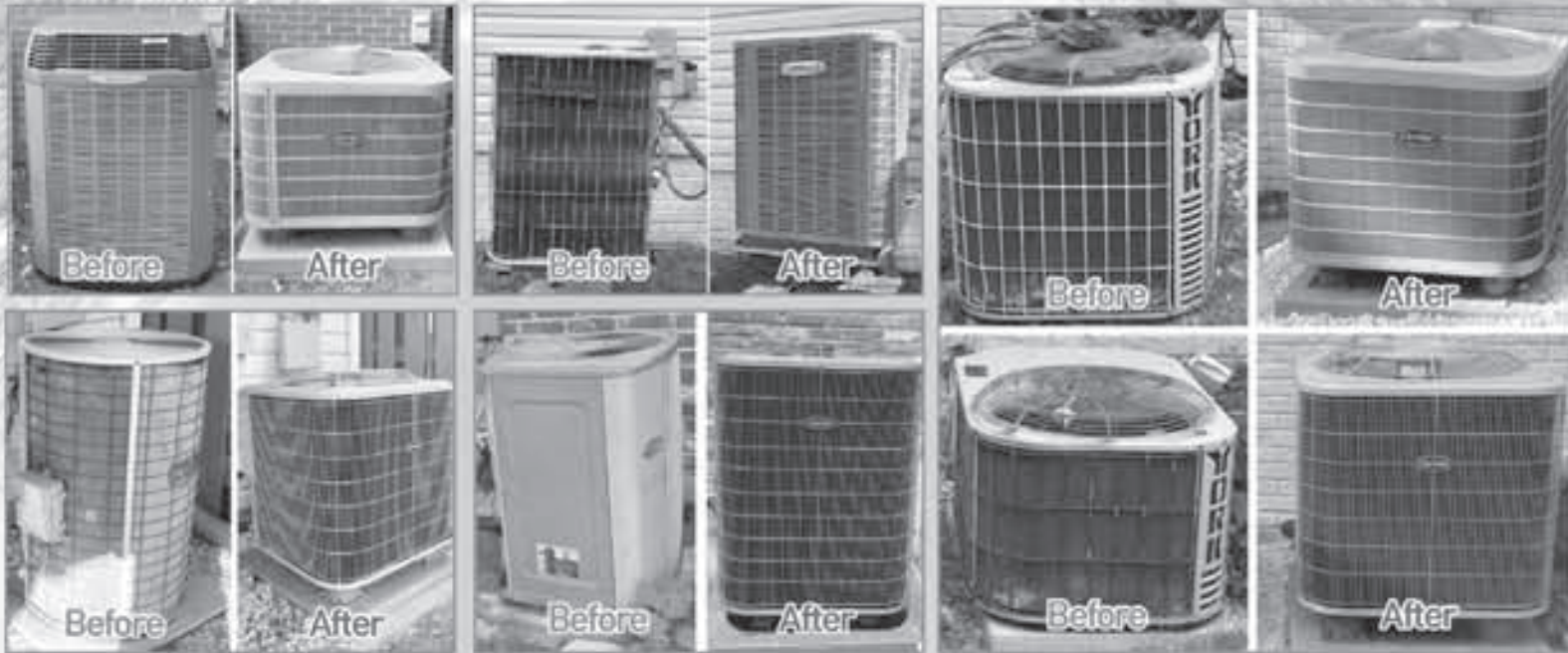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6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20년 전문!!

신용 저렴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someone or something) comes first: ~가 우선이다

(Dan is talking to his son Gabriel...)

(댄이 아들 개브리얼과 얘기한다...)

Dan: So it's been a month since you started working at the supermarket.
 댄: 그러니까 슈퍼마켓에서 일을 시작한지 한 달이 됐구나.
 Gabriel: Yes and I saved up enough money to buy my bicycle.
 개브리얼: 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사도 될 만큼 돈을 모았어요.
 Dan: I'm proud of you.
 댄: 네가 자랑스럽구나.

Gabriel: Why is that dad?
 개브리얼: 왜요 아빠?
 Dan: You worked long hours after school and kept your grades up.
 댄: 방과 후에 일을 많이 하고도 좋은 성적을 유지했으니까 말이야.
 Gabriel: Well I really did want the bike but school comes first.
 개브리얼: 자전거를 갖고 싶긴 했지만 그래도 학교가 더 우선이잖아요.

Dan: You did well son you did well.
 댄: 잘했다 아주 잘했어.
 Gabriel: Thanks.
 개브리얼: 고맙습니다.
 Dan: So when are you going to buy the bicycle?
 댄: 그럼 자전거는 언제 살 거니?
 Gabriel: I'm going this Saturday.
 개브리얼: 이번 토요일에 사려 갈래요.
 기억할만한 표현

▶ save up (money): (특별한 목적을 위해) 돈을 모으다
 ▶ She saved up to buy her car.
 (그녀는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 keep (one's) grades up: 좋은 성적을 유지하다
 "I hope my son keeps up his grades while he's on the soccer team."
 (우리 아들이 축구 팀에 있는 동안 좋은 성적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가로열쇠

(1)봄, 여름, 가을, 겨울 (3)조선 시대에, 임금 이 성균관 문묘에 참배한 뒤 보이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던 일. □성□□ (5)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6)판소리에서 한 내용을 길게 나열하거나 극적이고 긴박한 대목을 묘사할 때 쓰는 산조 장단. □진□□ (8)적의 창, 칼, 화살 따위를 막아 내는 무기 (10)개나 돼지가 너무 많이 떨어져 생기는 병 (11)짙은 초록색. 그녀는 진분홍 무명 적삼에 ~ 무명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있었다 (12)방을 닫히려려고 아궁이에 때는 불 (13)웃이나 이부자리 따위를 지을 때 두 쪽을 맞대고 꿰맨 줄. 그의 바지의 궁둥이 한가운데 ~가 터져서 내복이 비져나오고 있었다 (14)남편의 짝 (15)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함 (17)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 벽이 없기 등과 지붕만 있다 (18)남과 쉽게 잘 사귀는 솜씨. 불임성이나 포용성 따위. ~가 있다. □□□□ (20)우물 안의 개구리(와). 세상의 형편을 잘 모르는 견문이 좁은 사람. □저□ (21)새가 알을 낳거나 깃들이는 곳 (22)작은 것을 모아서 큰 것을 이룸. □소□□

세로열쇠

(1)밭철에 썩이 스스로 움. 제 허물을 제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남이 알게 됨. □치□□ (2)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한패를 이룬 무리. 서클. 대학생 ~ 연합 (3)알랑거리며 그림듯한 말과 행동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짓. 나한테는 아무리 ~를 끼고 그래 봐야 소용없어 (4)은행 속도가 빠른 열차. ←완행 (7)캠핑할 때 피우는 불 (9)언니와 여동생 (10)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 (11)말, 사자의 목덜미에 난 긴 털 (12)본래의 제맛이 변하여 나는 좋지 아니한 냄새 (13)소나무 열매의 송이 (14)두 팔을 둥글게 모아서 만든 둘레. 두 ~이나 되는 느티나무 (15)만남 사람을 반드시 헤어지게 됨.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 가져갈만이라 하지 않았던가? 만남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16)빨랫줄을 받치는 장대. 나풀거리는 치마저고리/아름다운 폭자 마음 씨/받들고 서 있는 ~/진종일 하나도 어려운 줄 모르네(박영춘). 바□□□ (18)얇은 돌 조각이나 나뭇조각으로 자방을 뒀은 집 (19)무릎 관절 안쪽의 오목한 부분

스도쿠

	9			4		3	1	
				7		8		
8	3			6	7			
1	2		8					
		6		1		9		
		5		3		2	4	
			1	4		8		6
	4			2				
			7	3	8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5	4	8	3	2	6	1	9
3	1	6	2	9	5	8	4	7
9	7	8	9	4	1	3	5	2
4	2	1	3	7	6	5	8	9
8	6	5	1	2	4	9	7	3
7	9	3	5	6	8	4	2	1
5	4	7	9	1	6	2	3	8
9	8	2	7	5	3	1	9	4
1	3	9	4	8	2	7	6	5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영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영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영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_____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_____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____ 년 ____ 월 ____ 일 서명 (sign): _____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기타 지역

매매 구인

성업중인 옷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가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죽/죽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 숙식제공
 알래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주방장
 숙식제공, 조리아주지역
 (646)229-2708

Hello K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질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구인 렌트 부동산

미국 라이프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헷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르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윤활유 젤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닥터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한인 업소록 + 뉴스 통합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로 살인
천공상상
 Up to 40% 할인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증정품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진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쑥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떨어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젠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2024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여름학기 개강 6월 18일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쭈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뻐뻐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Little River Tnpk.

중양일보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